



尹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어렵다” 02



Economy

코스피	2625.05 (-22.03)	코스닥	853.75 (-13.65)
금리 (우대금)	3.364 (+0.024)	환율 (원/달러)	1331.00 (-0.10) (27일)

##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한발 뺀 공정위 “원점 재검토”

### 플랫폼 경쟁촉진법, 과연 공정한가

#### 〈중〉 정부 입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사전’ 단어에 역차별 반발 거세

기준 회피 위해 각종 편법 예상 플랫폼 분야 경쟁력 약화 우려

공정위 “추가 의견 수렴할 것”

“법 제정이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달 24일 플랫폼경쟁촉진법(플경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인 소신이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면서 올해 설 연휴 전 공개, 의원 입법으로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추진력이 떨어진 데다 일부 내용에서는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플랫폼업점사업자협회, 컨슈머워치, 벤처기업협회 등은 역차별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규제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플경법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정

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이런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중소사업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제한·최혜대우 등 4대 반칙을 할 경우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목표다.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일각에선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방식을 두고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공정위는 사업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의 기준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이라는 단어에 역차별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 ◆지배 사업자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고?... “무슨 말이야” 역차별 논란 ↑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놓고 위법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위 같은 사후규제기관의 역할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면 시장 지배력 평가 등의 사후규제는 건너뛰고 사전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국내 플랫폼 기업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야”며 “투자 위축, 플랫폼 생태계 몰락 등 경제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MWC 2024 개막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202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열려 방문객들이 삼성전자 전시관 주변을 지나고 있다. 2024 MWC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관련기사 3면> AP/뉴시스

을 시가총액, 기업규모, 점유율 등으로 규제할 경우 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성장을 늦추거나 각종 편법이 판을 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들의 성장은 더뎠고 해외 플랫폼들만 규제를 피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업계 첫 D램칩 12단 적층 성공 삼성, 5세대 HBM 상반기 양산

### ‘36GB HBM3E 12H D램’ 개발 전작대비 성능·용량 50%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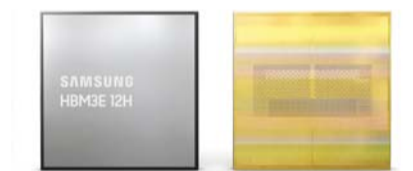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더 높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 소식을 알리며 경쟁력 우려를 불식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GB(기가바이트) HBM3E(5세대 HBM) 12H(12단 적층)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양산할 예정이다.

이번 5세대 HBM은 D램 칩을 TSV로 가장 높은 12단까지 적층하는데 성공했다. 초당 최대 1280GB의 대역폭과 현존 최대 용량인 36GB를 제공해 성능과 용량 모두 전작인 HBM3(4세대 HBM) 8H(8단 적층) 대비 50% 이상 개선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적층에 필름 방식인 ‘어드밴스드 TC NCF(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기술을 사용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HBM 적층 수가 증가하고, 칩 두께가 얇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휘어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단 적층 확장에 유리하다.

SK하이닉스가 MR-Muf로 발열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있었



36GB HBM3E 12H D램.

지만 삼성전자는 필름 방식을 고도화해 12단이면서도 8단과 동일한 높이로 구현해냈다.

NCF 소재 두께도 줄였다. 업계 최소인 ‘7um(마이크로미터)’를 구현했다. HBM3 8단 제품보다 20% 이상 수직 집적도를 높였다. 특히 칩과 칩 사이를 접합하는 공정에서 신호 특성이 필요한 곳은 작은 범프를, 열 방출 특성이 필요한 곳에는 큰 범프를 목적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 적용했다. 크기가 다른 범프 적용을 통해 열 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율도 극대화했다.

또 삼성전자는 NCF로 코팅하고 칩을 접합해 범프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면서 동시에 공극(Void) 없이 적층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도 선보였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보조금 개편에 친환경차 할인경쟁 점화

### 중 LFP 배터리 장착차 보조금 축소 車업계, 수요둔화 우려에 몸값 낮춰

‘EQC400·e-tron·I-PACE·아이오닉EV·코나EV.’

지난 2020년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된 모델들이다. 당시 수입차 모델의 경우 대부분 1억원에 육박하는 등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중형 모델임에도 5000만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당시 고가의 모델임에도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 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4년여 만에 국내 전기차 시장

의 흐름은 바뀌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으로 국산·수입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할인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완성차 업체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저가형 모델 출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55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보조금 100% 지급,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자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K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도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KGM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토레스 EVX의 가격을 200만원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기아도 전기차 할인에 합류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구매 혜택을 최대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 차량 가격 할인만 120만원이다. 기아는 EV 6, EV9, 니로 EV, 봉고 EV에 대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EV페스타를 진행한다. 차종별 제품 할인액은 EV6 300만원, EV9 350만원, 니로 EV 100만원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민주당 공천 논란에 “이재명 호위 무사에 하사하는 전리품”  
▲ ‘尹사단 비판’ 이성윤 징계위 재개... 李 “어떤 결론도 원천무효” /사진 뉴시스

▲ 野, ‘서울시 이승만 기념관’에 “차라리 을사오적 기념관까지 만들라”  
▲ 국회의원 후원금 작년 374억원... 1인당 1억2400여만원 모금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총선 앞두고 보석 신청 /사진 뉴시스



#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어렵다”

**尹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의료계에 최후통첩, 엄정 대응 풀이**  
“1학기 2700곳서 늘봄학교 운영 학교, 국가돌봄 중심 역할 해줘야 지역마다 정책품질 차이나면 곤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도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이번 1학기에는 20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총 2700여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학교가 국가돌봄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니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논리나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1면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서 계속

## 미국 상공회의소 “유사규제 논의 주시 규제안에 ‘큰 결함’ 韓, 투명성 보여야”

해외 플랫폼 기업에는 법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의 세부내용을 국내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매출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로서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해외 플랫폼은 감시망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킬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반발수위가 높아지자 공정위는 지난 7일 “플랫폼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며 “법안 공개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일각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지정 제도가 빠지면 이 법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 다른 대안도 별로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韓 정부, 양국간 경제관계 부담 키운다” 비판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해당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의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 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의 유형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양국간 경제 관계에 부담을 키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은 한미 양국간의 경제 관계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며 “유럽 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법을 제정해 주요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 한도 최대 3배 늘린다

산업부-한국무역보험공사  
1250억 보증보험 프로그램 신설  
200만 弗 이하 심사절차 간소화

정부가 원전 수출에 특화된 보증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원전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8일 총 1250억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신규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

/자료=산업부

구분	무보 수출보증보험	원전수출보증
지원한도	· 1배	· 최대 3배 - 특례인수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별한도 부여 (최대 3배, 1,500만불 이내) - 한수원 유자격자, 원전수출첫걸음 기업은 특례위 심사 없이 1.5배 지원(1,000만불 이내)
심사절차	· 모든 발급신청 건에 대해 기업신용평가, 한도심사 진행	· 2백만불 이하 건은 한도심사 생략 * 단, 신용도 최하수준(G급) 제외, 자기자본 이내
보험료	· 중소 25%, 중견 15% 할인	· 중소 40%, 중견 32% 할인

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50억원으로 1사당 1500만달러 이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가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되고, 200만달러 이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

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달러)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작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2027년 목표인 원전설비 5조원 수출을 2024년까지 조기달성하고 2027년까지 수출 10조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육성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테슬라 모델Y 보조금 받게 내리고, 1.9억 벤츠 4000만원 인하

>> 1면 ‘보조금 개편에 국내외’서 계속

테슬라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의 가격을 200만원 내린 5499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인

5500만원 미만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출고가 1억9000만원인 ‘EQS 450 4MATIC’을 출고가 할인 등 4000만원 가량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성비 모델 출시에도 속도를 높이

고 있다. 기아는 올해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중소형 전동화 SUV EV3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기아는 광명2공장서 EV3의 생산을 위한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경형 SUV

캐스퍼의 전기 버전인 캐스퍼 EV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올해 이쿼녹스EV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쿼녹스EV는 GM의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된 중형 전기차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AI 융합 통신산업 선배... 6G·UAM 등 일상혁신 돋보여

〈도심항공교통〉

올해 MWC '미래가 먼저' 주제 AI 상용화로 달라진 일상 소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4'가 개막했다. 신기술을 소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인공지능(AI) 상용화로 달라진 일상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4의 주제는 '미래가 먼저(Future First)'다.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AI와 완전히 융합한 통신산업을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꼽은 6대 키워드도 ▲5G를 넘어서 ▲모든 것의 연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혁신 ▲게임 체인저 ▲디지털 DNA다

## ◆글로벌 기업 협력의 장

국내 이통3사는 대표가 총출동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도모했다. SKT는 '글로벌 텔코 얼라이언스(GTAA)' 협력을 선언하고 AI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수행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KT는 국내 유일 GSMA 보드 멤버인 김영섭 대표가 'CEO 보드미팅'에 참석해 글로벌 통신사 수장들과 ICT 현안을 논의했다. LG유플러스는 전시관을 열진 않았지만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주요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관련 핵심 기술 등을 탐색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통신사는 텔코(통신사) AI의 가능성을 소개한 반면 올해



최태원 SK 회장(오른쪽)과 노태문 삼성전자 MX부문 사업부장(사장)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가 개막한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는 텔코 중심의 AI 서비스를 대거 내놓았다. SKT는 GTAA와 연합해 개발 중인 텔콘 거대언어모델(LLM)을 선보인다. 에이닷은 물론 AI 컨택센터(AICC), 버추얼 에이전트, AI 필터링 등이 텔콘 LLM에 적용됐는지를 소개한다.

또 AI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인 '액체 냉각'은 물론 의료 분야의 '인텔리전스 비전', 반려동물 AI 진단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도 실생활 AI 기술로 적용된 사례를 전시한다.

KT는 실생활 사용 단계에 돌입한 AI 기술을 선보인다. LLM이 적용된 AI 반도체, KT와 태국 자스민그룹(JAS)이 협력해 개발 중인 태국어 LLM 등 '소버린 AI' (국가별 자체 LLM) 등의 모델을 시연했다.

또 공유 킷보드, 전기차 충전기, 택시용 스마트 사이니지에 적용된 '온디바이스(On Device) AIoT'의 경우 블랙박스(EVDR)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 국내 이통3사 대표 총출동 AI 등 글로벌 협력방안 모색 6G·UAM 신기술 발표도

이밖에도 초거대 AI가 광고 도메인에 적용된 'AI 문맥 맞춤 광고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는 LLM이 사용자가 머무는 콘텐츠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 최적의 광고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 ◆UAM 상용화 경쟁

모바일 분야에서는 6G 시대를 대비

한 기술에 이목이 집중된다. SKT는 NTT도코모, 노키아 벨연구소와 협력한 AI 기반 지시국 무선 송수신 기술을 시연한다. KT는 위성주파수에서 5G를 동작할 수 있는 'RIS 기술'을 공개했다. RIS는 전파의 반사와 투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RIS를 도입하면 무선 통신 장비를 건물 외부로 노출 시키지 않고 고주파 대역 주파수를 투과해 신호를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초고층에서도 빠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이번에 개발한 RIS 기술은 이동체 내부 무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 6G 네트워크 구축에



김영섭 KT 대표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 그란 비아 전시장에 마련된 KT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MWC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국내 통신사 간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경쟁이다. SKT는 UAM 기체를 실물 크기로 전시하고 KT는 체험공간을 설치했다.

현재 SKT는 UAM 기체 제작사 조비에비에이션과 협력 중이다. 이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UAM 기체의 규모와 성능을 끌어올렸다. 자사 항공망은 물론 무인 자율비행, 지상 교통과 연계한 개인화 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KT 부스에서는 UAM에 사물이나 상태를 가상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적용한 'UAM 교통 트윈'을 공개했다. 또 UAM에서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 연결 네트워크 '스카이넷'과 항공망 '스카이페이스' 등을 선보이는 동시에 가상 비행 화면을 띄울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공간을 설치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유영상 "SKT, 진정한 글로벌 AI 컴퍼니 구축"

(SKT 사장)

유 사장, GTAA 의미·AI 전략 소개 "GTAA 멤버사 중심 사업영역 확장"

"지금은 한 산업분야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시대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텔코 LLM 등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통해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의 협회 의미와 SKT의 향후 AI 전략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도이치 텔레콤(독일, 미국 등), 이엔그룹(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싱텔그룹(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소프트뱅크(일본)와 GTAA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5개사는 통신산업 특화 AI 거대언어모델(텔코 LLM) 공동 개발 등에서 사업 협력을 수행한다.

이에 유 사장은 GTAA의 사업 비전과 향후 목표 및 확장 계획을 밝혔다.

먼저 GTAA 합작법인에 대해 "LLM은 연내 SK텔레콤 뿐 아니라 GTAA 멤버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유영상 SKT 사장이 MWC2024 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AA 합작법인 및 자사의 AI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SKT

합작법인을 시작으로 전 세계 통신사들이 모여 다양한 AI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유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 20여 개 글로벌 통신사들을 초청해 통신사 특화 AI 거대언어모델(LLM) 공동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협의체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했다.

SKT를 비롯한 GTAA는 향후 정기적으로 각 언어/지역별 대표 통신사를 초청해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GTAA 확장 및 다양한 기업 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유 사장은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 테이블의 경과를 언급하며

"참석한 통신사 중 다수가 GTAA 협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GTAA 합작법인은 GTAA의 멤버사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전 세계 통신사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지난해 9월 'AI 피라미드' 전략을 선포하고 각 분야의 AI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SKT는 AI 반도체 사파온과 AI 서비스 에이닷, AI 데이터센터(DC) 등의 분야에서 결과물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통신사들과 협력해 통신 산업은 물론 타 산업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는 게 유 사장의 구상이다.

유 사장은 "그동안 통신사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킬러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을 빅테크에 빼앗겼다"며 "얼라이언스를 공고히 해나간다면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글로벌 통신사들 GTAA에 끌어들이 세 자리수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기존 혁신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시장에서 과감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AI 컴퍼니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 KT, 5G·위성주파수에 'RIS' 기술 적용

건물·차량 등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기대

KT가 위성주파수에서 5G를 동작할 수 있는 'RIS 기술'을 공개했다.

KT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연구팀과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통신 주파수 3.5GHz 대역과 KT스카이라이프 위성 주파수 12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IS)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이 기술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서 선보인다.

RIS는 전파의 반사와 투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건물 외벽에 RIS를 도입하면 무선 통신 장비를 건물 외부로 노출 시키지 않고 고주파 대역 주파수를 투과해 신호를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게 돕는다.

KT가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개발한 RIS는 6G(6세대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 외에도 5G 무선 통신 주파수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 주파수 대역을 작은 면적으로 통과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KT는 밀리미터파(mmWave) 대역인 28GHz 대역을 시작으로 6G 후보 주파수 대역인 8GHz, 15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RIS 소재와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5G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RIS 시료의 면적이 커져야 하는 문제 등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낮았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된 RIS는 새로운 표면 설계 기술과 구조를 활용해 진행 방향 대비 90도 이상으로 굴절(음의 굴절 각도)되는 넓은 투과 각도와 높은 투과율을 동시에 확보한다. 전파 투과 각도가 넓으면 실내 무선 품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투명 소재로 제작돼 이동체 유리창에 부착하거나 일체형으로 제작이 가능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KT와 서울대학교는 자체 RIS 기술의 범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차량 유리창에 RIS를 부착하고 고속도로 외곽의 통신 타워의 5G 전파나 KT스카이라이프 위성 신호와 같이 차량 이동 방향의 수직 방향에서 인입되는 무선 신호가 내부로 굴절 되는 것을 확인했다.

KT는 이번엔 확보한 RIS 기술을 건물 창문이나 차량 창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장비 제조사, 소재·부품 회사와 협력을 지속한다. 또한 RIS와 같이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 가능한 요소기술을 지속 발굴해 6G 무선 통신 분야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이번에 개발한 RIS 기술은 이동체 내부 무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 6G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아세안5, 양질 소비재 수출 늘리고 중간재 질적 고도화 필요

한은, 아세안5 수출 특징·전망 보고서 한국 총 수출서 中·미국이어 세번째 반도체 비중 20%, 중간재 60% 이상 “아세안5 수출구조 개선해야” 경고



지난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가 감소한 307억 달러, 수입은 19.2%가 줄어든 3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이달 12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데 이어 연간 누계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관세청은 21일 밝혔다. 비가 내린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아세안5(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국가들이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7일 대(對) 아세안5 수출 특징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세안5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고 밝혔다.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비중은 20% 이상, 석유제품·화학공업제품 등 다른 중간재도 60% 이상을 차지했

다. 식품·의복 등 소비재는 5%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별 비중에서는 베트남(60%)이 절대적이다.

이날 한은은 아세안5 수출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중국 수출과 마찬가지로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 중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해 중간재 중심의 수출에만 주력하고 중국 내수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이후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고 내수 중심 성장을 도모하자 결국 대 중국 수출은 감소했다.

한은은 반도체 등 중간재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아세안의 소비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해 소비재 수출을 증대시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세안5 국가의 고위기술 중간재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017년 부터 상승세를 멈추고 13%안 밖에서 정체돼 있다. 또 아세안5 국가의 수입품목 중 89%는 중간재로 이뤄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규제 회피를 위해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이 늘면서 앞으로 해당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중간재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아세아의 인구 및 소비시장 성장을 감안해 양질의 소비재 수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韓·美·EU 물가여건 달라… 통화완화 시점 차별화”

한은,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 韓 농산물 가격 높은 수준으로 지속 美 지난해 말 이후 고용 상황에 ‘발목’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목표치(2%)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각국의 물가에 미치는 요소들이 달라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최근 한국·미국·유로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1%로, 시장의 예상(2.9%)을 웃돌았다. 유로지역은 지난해 11월 2.4%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월 2.8%로 반등했다.

우리나라의 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에서 올해 1월 2.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7월(2.4%)보다 높은 수준으로 물가목표치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한은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국제유가를 올리며 물가상승률을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

제로 국제유가는 2022년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다가 지난해 7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 물가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올해는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상승률 목표치 둔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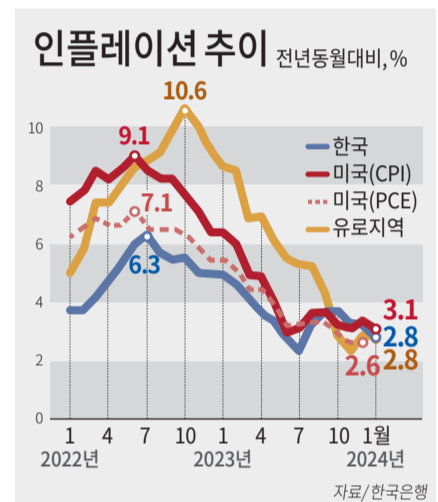
여기에 국가별로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요인도 차별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이후 견조한 고용상황이 지속되면서 근원서비스물가 상승모멘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상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역의관계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 위해선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

다. 견조한 고용상황에서 더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물가 상승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8~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황부진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농축산물의 물가여건도는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국의 물가둔화흐름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동인과 경기흐름에 따라 둔화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방리스크뿐 아니라 각국의 물가 둔화 요인에 따라 통화정책 전환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청약신청 줄자 당첨확률 2배 증가... 30대 이하, 확률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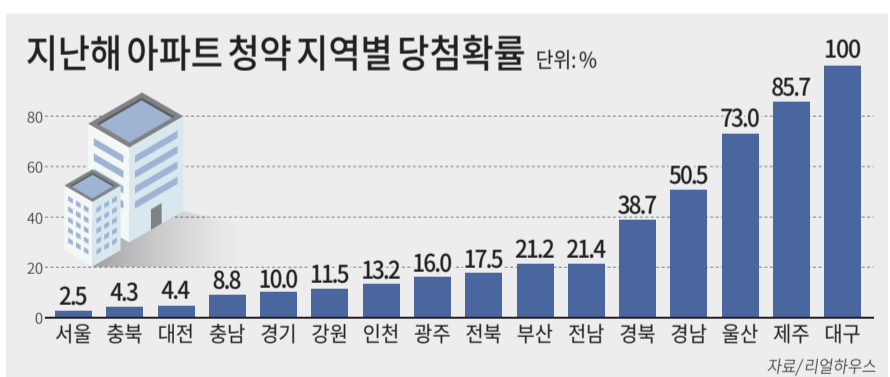
2020년 대비 2배이상 오른 수치 충북 4.3%, 대전 4.4% 등 한 자릿수 대구·제주 각각 100%, 85.7% 확률

아파트 청약신청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당첨될 확률이 가장 낮았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청약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분양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총 132만6157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11만148명(1순위, 2순위 포함)으로 8.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4.0%) 대비 2배 이상 오른 수치다.

아파트 청약당첨률이 올라간 것은 청약 신청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약 신청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2020년에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516만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42만명이 감소한 374만명이 신청했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5만명, 132만명이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



당첨확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는 36만3054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2.5%(8989명)만 당첨됐다. ▲충북 4.3% ▲대전 4.4% ▲충남 8.8% 등으로 서울과 충청권 지역 아파트에선 한 자릿수 당첨 확률을 기록했다. 반면, 마감된 단지가 없었던 대구와 제주에 각각 100%, 85.7%의 당첨 확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당첨될 확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20~30대 청약 신청자는 71만7085명으로, 그중 8.0%가 당첨됐다. 20~30대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청약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50대는 청약자 16만3997명 중 9.2%가 당첨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는 8.51%, 60대 이상의 신

청자 중에는 8.4%가 당첨됐다.

인기지역인 서울이나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청년, 젊은 계층의 청약 기회를 넓히려고 제도를 손보고 있어 향후 30대 이하 청약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19세~39세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과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시행 중이다. 내달에는 ‘부부 개별청약 신청’과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신생아 특별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모두 적용되는 85㎡·6억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대기업-中企 월급 격차 300만원 넘는다

통계청 ‘임금 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대기업 591만원 vs 中企 286만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급 격차가 300만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2022년 기준 대기업 월급은 중소기업 월급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종사자는 세전보수로 월평균 591만 원, 중소기업 종사자는 286만 원을 받았다. 소득 격차가 2021년 2.12배에서 2.07배로 줄었으나 금액 차이는 297만 원에서 305만 원으로 더 커졌다.

또 대기업의 경우 1000만 원을 받은 이상 비중이 12.9%인 반면, 중소기업은 1.7%에 머물렀다. 대기업은 절반 넘게(54.3%) 4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탔으나 중소기업은 13.9%에 그쳤다.

대기업 종사자의 평균소득은 50대(768만 원), 40대(728만 원), 30대(55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40대(332만 원), 50대(316만 원), 30대(300만 원) 순이었다. 규모별 평균소득은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이 4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0~300명(351만 원), 50명 미만(261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이외의 비영리 기업은 전년보다 3.3%(11만 원) 오른 346

만 원을 받았다.

산업별로, 금융·보험업 월평균 소득이 757만 원으로 가장 많이 타갔다. 전년보다 4.3%(31만 원) 늘어났다. 이어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이 680만 원, 국제·외국기관이 515만 원이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172만 원)이었다.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223만 원)과 농업·임업 및 어업(231만 원)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과 비교해 건설업(+34만 원·12.9%)에서 월급이 가장 많이 올랐다. 운수 및 창고업(+26만 원·8.2%), 사업시설 관리(+15만 원·7.1%)가 뒤따랐다. 국제 및 외국기관(515만 원·-0.1%)은 소득이 줄었다.

성별로, 남성의 평균 소득은 414만 원으로 여성(271만 원)의 1.5배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6.5%(+25만 원), 여성은 5.7%(+15만 원) 올랐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용직 비중이 높은 산업에 남성이 많이 분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남성은 50대(509만 원), 40대(508만 원), 30대(409만 원) 순으로 소득이 높고 여성은 40대(335만 원), 30대(335만 원), 50대(280만 원) 순이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세상에서 가장 희망찬 달리기

달산초등학교 운동회 날  
6학년 3반의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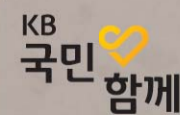
2등으로 달리던 친구가 넘어지자  
뒤따라 달리던 친구들도  
앞서 달리던 친구도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러 달려옵니다

다섯 명이 서로 부축하며 함께 들어온 순간,  
함성의 박수가 운동장 너머까지 들립니다

함께한 모두가 승자였던 그날의 운동장.  
희망이란 출발선은,  
모두가 함께 가야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늘 국민 곁에 KB가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미래세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KB 국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내용은 2016년 5월 4일 부산 달산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 (김도형, 김도현, 최여준, 김태원, 김효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힘지’ 후보 고르기 고심

63개 지역구, 공천방식 조차 못 정해 서울·수도권 일부 후보 아예 없기도 당내 ‘국민추천제’ 추진 방안 고려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을 절반 가량 완성한 가운데,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일부 지역구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중 133곳(52.5%)의 후보를 확정했다. 그리고 남은 120개 지역구 중 63개 지역구가 공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보류 지역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힘지라 공천 신청자조차도 없는 곳이거나, ‘뒷발’인 대구·경북(TK)의 일부 지역 또는 서울 강남갑·을·병 서초을 등이다. ‘뒷발’ 지역구의 경우엔 현역 교체로 인한 반발을 고려해, 발표를 늦추는 모양새다.

반면 당세가 약한 ‘힘지’는 후보가 없어서 고심 중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후보가 아예 없거나 재공모를 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노원갑·을·병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원을은 공천 신청자가 없었고, 갑·병은 공천 신청자가 있음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중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서을도 아직 후보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곳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컷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프(공천배제)됐고, 또 다른 예비후보였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도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공관위는 강서을에 박마루장에 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후보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이곳은 28개 지역구 중 14곳에서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구는 10곳이나 된다.

이 때문에 당에서는 ‘국민추천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참신하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 이는 ‘현역 불패’, ‘무음 공천’ 등의 논란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원하

시는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보면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라며 “그런 지역에서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당의 공천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그리고 몇개, 어느 지역구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공천 발표는 자연스럽게 미뤄질 전망이다. 여러 후보를 추천받고 이 가운데서 당이 적합도를 평가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적으로 확충할 것”

與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 기후대응기금 5兆로 늘려

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차세대원전인 소형 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과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 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공약을 배설했다. 성동구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정말 인류의 심각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위험받은 정치권력은 꼭 당장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

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접근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는 “완전 재생에너지로만 가서 우리 사회의 단기적, 중기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영역은 정부 주도만 해선 한계가 있고,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기후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론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경기도 용인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시스

# 임종석 공천배제·최고위원 사퇴 등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민정〉

# 민주당, 거듭되는 혼란에 ‘적신호’

중구 성동구갑에 전현희 전략공천고 “문제지적에 물러나라 답변 들어” 비명계 박영순 의원, 새로운미래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제외,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 비이재명계 의원의 탈당이 하루 안에 벌어지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친이재명계 후보 공천과 친문재인계 후보 공천을 두고 당내 이견차가 과열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자신이 재선을 했던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던 임 전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제외됐다.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임 전 실장은 당이 제안한 송과갑 공천도 거부하면서 중구성동구갑 재탈환에 의지를 보였으나, 전략공관위는 전 전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날(26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당무 거부’를

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했다. 고 최고위원은 “하위 20%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고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들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탈당하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의원으로 2명이 됐다.

앞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5선의 설훈 의원이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와 현안 토론회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당초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열기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설날을 전후해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라고 당의 단합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개혁신당 “韓 희망,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 공약 “반도체 살리면 대한민국도 살아”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27일 “반도체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며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서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의 성공을 위해 ▲22대 국회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을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양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또 첨단 산업 시설, 연구 투자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 교부금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경기 남부권 전체가 ‘용인 특화단지 효

과’를 누리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시키겠다”면서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을이 지역구인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더 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가스, 전기, 용수만이 아니라 도로 및 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2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10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다!다! 후  
기다려!♡

하나뿐인 내 편,  
임영웅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겠습니다

# 영웅은 하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CIR·연체율 낮춰야... 경영 효율화, 리스크 관리 절실

(영업이익경비율)

## DGB금융 황병우 號 과제는

현 회장과 보폭 맞춰온 내부인사  
시중은행·미래 전략 탄력 기대  
4대 금융지주와 정면승부 어려워  
전국 영업망 확대 최우선 추진

DG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최종 선정됨에  
현안과 향후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의 예상대로 황 행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되면서 이변이 없었다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황 행장을 단독으로 추천한 배경은 그룹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전과 전략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DGB금융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만큼 안정성을 위해 김태오 현 DGB금융 회장의 후계자로 평가 받는 황병우 행장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황 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결정되면



황병우 DGB금융 차기 회장 후보자(현 대구은행장) /DGB금융

서 DGB금융의 현행 과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황 행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주요 안건에 직접 참여해 온 만큼 차기 사령탑 결정을 앞두고 느슨해졌던 현안 및 미래 과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금융권에서는 황 행장의 회장 취임 이후 DGB금융의 최우선 과제로 시중

은행 전환 이후 전국 단위 영업망 확충을 꼽았다.

DGB금융은 내달 은행부문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영업 구역 제한이 사라진다. 그러나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와의 자산규모 체급 차이가 커 영업점 영업이나 금리 등을 앞세운 정면 승부는 어렵다.

DGB금융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디지털 플랫폼 개인 금융, 맞춤형 기업 금융 등 영업 방식 다각화를 통해 전국 단위 '니치마켓(틈새시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 금융에서는 대구은행 인터넷 뱅킹 앱 'i뱅크' 및 외부 핀테크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영업 확대에 나선다. 자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인 파우렐을 통한 자체 역량 강화도 이어간다.

기업 금융 부문에서는 전국단위의 맞춤형 기업 금융 제공을 위해 수도권·충청 지역에서 제1금융권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DGB금융의 향후 과제로는 경영 효율화 및 리스크관리가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DGB금융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은 47.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4대 금융지주의 평균은 41.6%였다. 시중 지주와의 경쟁을 위해선 조직 간소화·영업 효율화를 통한 비용 감소가 요구된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61%를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인 0.25%(KB 0.22%, 신한 0.26%, 하나 0.26%, 우리 0.26%)를 웃돌았다. 연체율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이 늘어나고, 영업 확대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DGB는 기존 신용평가모형에 대한정보 등의 활용도를 높여 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지역별로 현지 인력 채용을 통한 맞춤형 심사 체계도 함께 도입해 다방면에 걸친 건전성 및 연체율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하나은행-파운트투자자문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협력

하나은행이 파운트투자자문과 퇴직연금 상품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운트투자자문은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해 투자일임,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이다.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은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삼성화재 순익 1.8조 '1위'... 메리츠화재 1.6조 '맹추격'

1-2위 격차 2500억 수준으로 좁혀  
DB손해보험, 1조5367억 3위 기록

지난해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가운데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메리츠화재가 매섭게 성장하면서 DB손해보험을 제치고 2위에 올라 향후 업계 1위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실적표가 나왔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8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11.7% 늘어난 2조4446억원으로 사상 이래 첫 2조원을 돌파했다.

메리츠화재는 DB손해보험을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랐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5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D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21% 가량 줄어든 1조5367억의 순이익을 기록해 메리츠화재에 2위 자리를 내줬다. 현대해상은 37% 급감한 805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75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실적만 보면 메리츠화재가 순익 2787억원을 기록해 순익 1755억원을 거둔 삼성화재를 제치고 3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호실적 행진에 힘입어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와의 순이익 격차를 2022년 3700억원에서 2023년 2500억원

수준으로 좁혔다.

메리츠화재는 "호실적 지속은 업계의 출혈 영업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신계약의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해 우량 계약 중심의 매출 성장에 집중한 덕"이라며 "효율적인 비용 관리 등 본업 경쟁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반기 호실적을 이어오던 삼성화재는 4분기 순이익이 약 47% 감소하면서 주춤했다. 삼성화재의 4분기 보험순이익은 192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다. 또한 장기보험순이익은 전년 대비 30.6% 급감한 23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메리츠화재가 장기보험 순이익을 30% 이상 끌어올린 것과는 대비된다.

메리츠화재의 급성장으로 삼성화재와 향후 업계 1위 자리를 둔 경쟁이 치

열해질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2025년까지 업계 1위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종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최근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전체년 1등 목표'를 신년목표로 내세우고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삼성화재는 올해 '초격차 실현'으로 업계 1위는 물론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양과 질,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을 통한 초격차 실현으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2024 추진 전략으로 신영역 개척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 부문 글로벌 진출로 시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 분양시장 '휴식기' 내달 8466가구 공급

2001년 이후 최저 물량

아파트 분양시장 성수기인 오는 3월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청약홈 개편으로 3주(3월4~22일) 동안 분양시장이 휴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8466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동월 기준 2001년(7987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경기(4651가구) ▲대전(1962가구) ▲부산(922가구) ▲인천(732가구) ▲서울(199가구) 순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물량이 전무하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3곳 중 '복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 I (1744가구)', '지체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1209가구)' 등 2곳이 경기 물량이다. 서울은 '\*[취재] DGB금융, '황병우'호 출항까지 한 달...과제와 현안은?(승진)라(199가구)'가 나온다.

지방은 대전에서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1213가구)',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터로(749가구)'가 분양한다. 이밖에 부산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B3(507가구)', 'e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415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늦어지는 금리인하... 저축은행, 상반기 보릿고개 넘는다

여신잔액 감소로 수신경쟁력 약화  
상반기 부실채권 매각 방안 분수령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저축은행권의 선택이 복잡해졌다. 여·수신을 모두 줄여 수익성이 악화한 만큼 상반기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최근 한국은행은 9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 3.5%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아직 물가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밀리고 있는 만큼 속도를 늦출 것이라 시각도 나온다. 빨라야 오는 하반기가 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자 저축

은행권은 올 상반기 먹거리를 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지난해 대출문턱을 높이면 여신잔액이 크게 줄었다 때문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여신잔액은 317조3872억원이다. 같은해 1분기(343조7150억원) 대비 약 26조3300억원(7.65%) 감소했다. 2분기와 3분기 또한 감소세를 유지했는데 각각 332조4060억원, 326조0236억원으로 나타났다.

여신잔액이 줄어 들면서 수신경쟁력도 약화하고 있다. 은행권과 예금금리 격차를 0.1%포인트(p)도 벌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권의 정기예금(1년물)금리 상단은 연 4.10%다.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다.

반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DGB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과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다. 두 상품 모두 연 4.05%의 금리를 적용한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상단과 0.05%p 차이에 불과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안 나가니 수신할 필요성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며 "단 이런 축소흐름이 장기화하면 결국 사업규모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부실채권(NPL) 매각 방안을 반동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F&I)로의 NPL 매각에 눈독을 들일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개인사

업자 NPL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저축은행권의 개인사업자 NPL 매각처가 새출발금융으로 한정되면서 가격 입찰치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NPL 매각을 서두를 것이라 입장이 나온다. NPL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면 그동안 쌓아놓은 충당금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다. 다만 업권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해 손해가 발생했던 저축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가 더 건강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연체율 해소를 통해 쌓아놓은 충당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



# 美, 현대차그룹 성장세 조명... “로보틱스 등 도전·혁신 결실”

CNBC, 4개 챗터로 성장세 분석  
혁신 기술로 전기차 시장 선도  
품질보증 등 브랜드 신뢰도 제고



정영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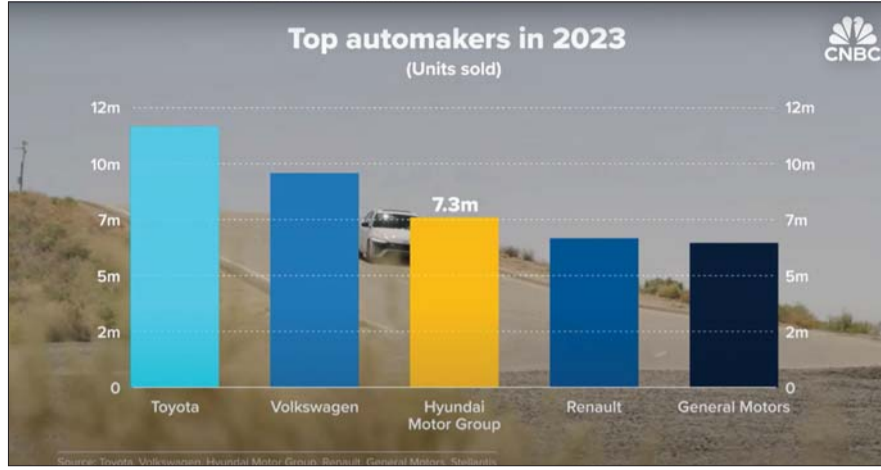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현지 경제매체 CNBC가 ‘글로벌 톱3’ 완성차 업체로 우뚝 선 현대차그룹의 성장세를 집중 조명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대 글로벌 10위에 머물렀으나 2010년 포드를 제치고 처음으로 톱 5에 진입했다. 2020년 4위에 오른 뒤 2021년 5위를 내려앉았다가 2022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CNB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동차 기업이 됐을까’라는 제목으로 15분 분량의 방송 리포트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CNBC는 “현대차그룹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선두권 업체와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며 “로보틱스·자율주행·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다른 경쟁 업체들이 포기하고

있는 영역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도는 현대차그룹의 경쟁력을 ▲강력한 경쟁자 ▲험난한 과거 ▲혁신적인 변화 ▲미래전망 및 도전과제 등 총 4가지 챗터로 나눠서 분석했다. 특히 첫 번째 챗터인 ‘강력한 경쟁자’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 등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1월 기준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포드에 이어 업계 4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샘 아부엘사미드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 애널리스트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톱3 비결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CNBC 방송 화면 갈무리.

전기차는 가장 선도적인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의 전기차와 향후 출시 예정인 모델들도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킴 오토 퍼시픽 수석애널리스트는 “현대차 아이오닉5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토요타의 동급 모델인 bz4x와 비교해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챗터인 ‘험난한 과거’에선 1986년 현대차는 포니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포니 후속

모델 엑셀을 통해 미국에서 완성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로 도전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브랜드 대비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을 들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챗터인 ‘혁신적인 변화’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톱3 자동차 메이커로 올라설 수 있었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한 토요타, 혼다와 같은 일본 경쟁업체들의 모범사례를 차용하며 ‘패

스트 팔로워’ 전략을 실행했다. 품질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2000년대부터 경쟁업체들에 버금가는 수준에 올라왔다.

이무원 연세대 교수는 “2000년대 초 현대차그룹의 품질 수준은 미국의 빅3 및 일본 자동차업체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했고, 에드킴은 “과격적인 보증 정책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품질에 대한 진심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고, 더 이상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챗터인 ‘미래전망 및 도전과제’에서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리콜, 차량 도난 등 미국 시장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기술 개선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지속 개발하면서 넥쏘, N 비전 74 등 혁신적 모델을 선보인 점과 자율주행, 온라인 차량 판매 등 도전과 혁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CNBC는 “현대차그룹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자동차 업계 리더로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KBIS 2024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 부스에서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부스와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LG전자

## ‘데이코 빌트인·비스포크’ 소개

### SAMSUNG

‘비스포크 AI 콤보’ 등 신제품 전시  
“고객의 일상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

삼성전자가 빌트인 ‘데이코’와 맞춤형 ‘비스포크’ 브랜드로 글로벌 주방 가전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2024에서 데이코 빌트인 라인업과 비스포크 신제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럭셔리 빌트인 브랜드 데이코는 ▲모던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컨템포러리(Contemporary)’ 라인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트랜지셔널(Transitional)’ 라인으로 나눠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제품들을 제안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소비자들이 여러 사람들과 주방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선

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주방 가구장이나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 등의 아래에 설치하는 언더카운터 타입의 냉장고와 와인냉장고가 도입했다. 와인냉장고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3중 글라스 도어로 와인 고유 맛을 보존하고 내부에 터널 라이팅 조명으로 고급스러움도 강조한다.

강화된 비스포크 가전도 자랑한다. AI비전인사이드를 특징으로 하는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와 함께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 AI 스팀’, ‘비스포크 AI 콤보’ 등이 CES2024에 이어 처음 소개된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익수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가전 라인업을 통해 최대 가전 시장인 미국의 현지 소비자들과 거래선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AI와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는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고객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공감 AI 기반 스마트홈 제안

### LG전자

빌트인 가전 등 新거주문화 제시  
맞춤형 전시존 통해 혁신제품 소개

LG전자가 새로운 거주문화를 제시한다.

LG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KBIS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BIS는 주방과 욕실 분야 북미 최대 박람회로, 전세계 500여개 가전 업체들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며 지난해 5만명 이상이 다녀갈만큼 인기가 높다.

LG전자는 1022㎡ 규모 전시장에서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과 고효율 에너지 기술, 공감 AI 기반 스마트홈 솔루션을 통해 주택 진화와 통합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고객 맞춤형 패키지를 통해 빌트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건설

시장을 겨냥해 개인 프로필 기반 패키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주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양한 맞춤형 전시존을 통해 욕실 솔루션과 ‘워시콤보’, ‘하이드로타워’ 등 혁신제품도 소개한다.

‘지속가능한 집’ 콘셉트로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도 제시한다. 대부분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았으며, 효율이 높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온수기와 핵심 부품 기술력 ‘코어테크’도 앞세웠다.

공감하는 AI로 미래 스마트홈도 상상했다. 스마트홈 AI 에이전트가 가사생활도우미로 집안을 둘러보며 가전 작동을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현재 상황을 직접 보여주기도 한다. /김재용 기자



## 한국타이어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타이어 산업 부문 15년 연속 1위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국내 타이어 산업 부문 1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타이어는 혁신 능력, 주주 가치, 사회 가치, 고객 가치 등 6대 핵심 가치 관련 항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뛰어난 제품 경쟁력과 경영 능력, 재무건전성 등을 기반으로 국내 타이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환경친화적 경영 등으로 최상위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엠버서더 찾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AI 콤보(사진)를 알릴 소비자들을 찾는다.



삼성전자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비스포크 AI 콤보 엠버서더’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엠버서더는 비스포크 AI 콤보를 체험하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 후기를 개인 SNS에 작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후 비스포크 AI 콤보를 선물받는다.

이벤트 페이지에 제공한 제품 이미지를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사람 중 10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 네카오 웹툰, 효자노릇 '톡톡'... 외형성장 전략엔 상반행보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올해 美 증시 상장 목표  
상장 시기 이르면 올 6월 될 전망  
카카오, 경영진 사법 리스크 집중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주력 방침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사업이 새로운 알짜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다만, 두 회사의 웹툰 관련 외형 성장 전략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네이버 웹툰은 올해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해외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카카오엔터는 IPO(기업공개) 추진을 보류하고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

27일 시장조사업체인 마켓그로스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웹툰시장 규모는 39억달러(약 5조2000억원) 수준이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피코마가 업계 1위를 다투면서 시장 규모를 확장시켰다.

지난해 12월 네이버웹툰의 일본 플랫폼인 '라인망가'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023만 명을 기록했다. 카카오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픽코마'도 1000만 명 넘는 MAU를 보유하고 있다. 두 앱의 일본 웹툰시장 점유율은 59%에 달한다.

카카오 픽코마는 일본 내 게임을 포함한 전체 앱 중에서 지난해 연간 매출 1위를 달성했다. 특히 만화 단일 앱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최초로 연간 거래액 1000억엔(한화 약 8889억원)을 돌파했다.

픽코마는 데이터에이아이아가 집계한 '2023 모바일 앱 마켓 소비자 지출' 순위에서도 게임을 포함한 전체 카테고리 '일본 1위', '글로벌 17위(게임 앱 제외 7위)'에 올랐다.

네이버웹툰 역시 고른 성장세를 보이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뉴시스

고 있다. 네이버 웹툰은 분사한 지 6년 만에 지난해 연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첫 흑자를 달성했다. EBITDA는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네이버웹툰의 지난해 글로벌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약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두 회사의 웹툰 수익성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상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네이버 지분 71.2%)는 미국 나스닥 입성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했다. 상장 시기는 이르면 올해 6월이 될 전망이다. 목표 기업가치는 30억~40억달러(약 4조65억~5조3420억원)로 추산되며,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5억달러(약 67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권가는 네이버웹툰의 미국 상장이 모회사인 네이버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웹툰 기업의 상장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데다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웨이문그룹(Yuwen Group)의 시

가총액도 상장 초기보다 현재 72%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피코마를 운영하는 카카오엔터는 증시 상장을 염두했지만 보류한다. 연이어 발생한 경영진 사법 리스크로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정 의혹까지 휘말리며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고 나섰다. 이처럼 내부 과제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IPO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평가다.

다만,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을 실현할 핵심 계열사로 꼽혀왔다. 지난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관청(GIC)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를 받은 데 이어 시가총액 1조원대인 SM엔터테인먼트 인수까지 추진하며 성장 기대감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카카오엔터가 알짜 사업인 카카오피코마를 활용해서 시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의 IPO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SW 역량 강화

모빌리티 SW 해커톤 개최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S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SW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 인재 확보 차원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SW 개발을 목표로 다수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경연에서는 안전과 편의를 키워드로 한 미래 SW 개발자들의 아이디어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모빌리티 SW 해커톤에는 국내 16개 대학 SW 동아리와 개발자들이 16개 팀을 이뤄 총 60명이 참여해 SW 개발 실력을 겨뤘다.

지난달 참가팀 선발 이후 2주 간 사전 임베디드(차량용 기능과 같은 내장 시스템) SW 교육을 제공해 결과물 퀄리티를 높였고, 3주 간의 팀별 개발 프로젝트를 거쳐 지난 23일 종일에 걸쳐



현대모비스가 진행한 '모빌리티 SW 해커톤' 대회에서 대학생들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분야 편의·안전 기술을 주제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해커톤 본 행사가 진행됐다.

참가팀들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분야에 걸쳐 각각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4개 주제 중 하나를 택해 임베디드 SW로 구현 가능한 모빌리티 최적화 SW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모빌리티 상황 판단' '주차 자동화' '운전자 건강-모빌리티 연결' '차량 기능-인포테인먼트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중진공, 中 海외진출 추가 지원 나선다

남동발전 본사서 업무협약 체결  
해외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남동발전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진공은 남동발전과 경남 진주 남동발전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출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진공과 한국남동발전은 협약을 통

해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점 간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추진 ▲지원기업 대상 해외진출 관련 정보 상호 제공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사업 연계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수출바우처 등 정책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발전 분야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를 비롯한 양질의 정보와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 제고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KT "AI 등 디지털생태계 주도권 확보"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 서울 개최  
AI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 주제 진행  
6G·생성형 인공지능 등 미래 논의

KT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함께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 서울(M360 APAC 서울)'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KT는 26일(현지 시각)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 전시장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2024년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영섭 KT 대표,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KT는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M360 APAC 서울에서도 호스트 스폰서를 맡은 바 있다.

M360은 GSAMA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현안에 대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별 주제를 선정해 IC



(왼쪽부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김영섭 KT 대표,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4" 현장에서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T 업계의 어젠다를 논의하고 있다. 콘퍼런스뿐 아니라 참여 기업들의 소규모 전시도 마련돼 최신 모바일 기술과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올해 M360 APAC 서울은 'AI를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Advancing Digital Nations with AI)'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주요 IT 기업의 리더들과 과기정통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및 학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산업별 디지털전환(DX), 생성형 인공지능(GenAI), 6세대 이동통신(6G),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

김영섭 대표는 "올해도 M360 APAC 서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AI 등 디지털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중기중앙회

정기총회 450여명 참석  
50인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정기총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최근 중소기업계는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오는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KAIDA

틸 셰어 16대 회장 재선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틸 셰어 사장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KAIDA는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총회를 열고 셰어 사장을 16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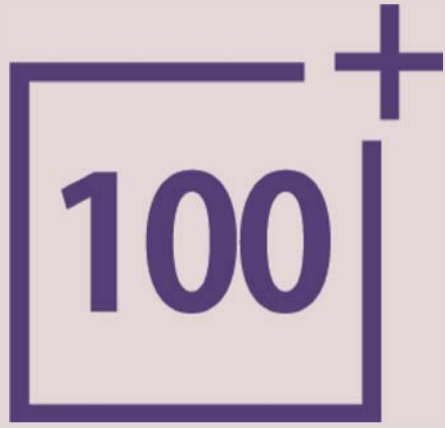
틸 셰어 회장은 2021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고 2022년 3월 제15대 협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틸 셰어 회장은 KAIDA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내외 자동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교류하며 상호 협력 증진에 힘써왔다.

/김재용 기자 juk@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2024.03.20(수)

###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 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 ~ 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 外人 유입에도 변동성 우려 커져

코스피, 연속 하락… 2625.05 마감  
外人·개인, 세부안 발표 다음날  
순매수세 마감에도 코스피 약세 지속  
밸류업프로그램 모멘텀 일단락 돼  
일부 저PBR, ‘옥석 가리기’ 예고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2.03포인트(0.83%) 내린 2625.05에, 코스닥지수는 13.65포인트(1.57%) 내린 853.75에 장을 마쳤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최근 한 달간 한국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이들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저주가 순자산비율(PBR)주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지만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발표하자 국내 증시가 혼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0.77% 하락한 것에 이어 연속으로 0.83% 하락하면서 2625.05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

부안이 발표된 26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7조3414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동일 기간 기관은 약 744억원, 개인 투자자는 약 6조7310억원씩 순매도했다.

앞서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형태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꾸려진다면 차익매물이 나올 공산이 크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이후로 한국 증시에 대규모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오전 중에는 외인과 기관의 실망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코스피지수 낙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회복되면서 다시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다.

26일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1187

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862억원, 477억원을 팔아치웠다. 이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612억원)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꼽히는 현대차(299억원)도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특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와 관련해 기업과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그때부터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모든 종목이 올랐지만 향후에는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27일에도 장중 외국인들은 실망 매물을 출회시키며 순매도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투심이 회복되면서 순매수세로 마감했다. 더불어 이날 개인도 순매수로 전환되며 국내 증시로 다시 복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코스피의 약세는 지속됐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495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1654억원을 사들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은 어제부터 일단락됐지만, 수급을 보면 여전히 저PBR 종목들에 대해 외국인 자금 유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등이 위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주 등 일부 저PBR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정책 기대감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부터 금융주는 장기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주주 환원 여력과 의지가 반영된 중장기 주주 환원정책의 유무와 정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금감원, 지난해 IPO 시장동향 분석

# 고금리에도 IPO기업 증가… 투자 수익률은 72% ‘급등’

12월 상장사 수익률 200% 초과  
청약증거금 295兆… 전년비 42.5% ↑  
수요예측 참여기관수 역대최대 규모

지난해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기업공개(IPO)에 나선 기업들이 증가한 것은 물론 공모주 투자 수익률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상장 첫 날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 200%에 달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은 82개사로 전년 대비 17.1% 늘었다.

공모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8%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초대형 IPO였던 LG에너지솔루션(12조7000억원)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공모규모도 16% 증가한 수준이다.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급등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가	기업수	7	5	14	4	5
	공모금액	0.9	2.1	16.4	13.2	1.1
코스닥	기업수	66	65	75	66	77
	공모금액	2.3	2.4	3.3	2.5	2.2
합계	기업수	73	70	89	70	82
	공모금액	3.2	4.5	19.7	15.6	3.3

주 1) 스펙, 리츠, 코넥스 상장, 재상장, 코스피 이전상장, 주식이전 제외, 2) 상장시점 기준 /금융감독원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및 증가 수익률은 각각 평균 82%, 72%로 전년 30%, 28% 대비 크게 개선됐다. 특히 IPO시장 호황으로 12월 상장사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2월 IPO 6건의 시초가, 상장일 증가수익률(평균)은 200%를 초과했다.

청약경쟁률은 934대 1로 전년 775대

1보다 크게 올라갔다.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총 295조 원으로 전년 초대형 IPO건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42.5%나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100~500억원 규모의 중소형 IPO가 75.6%로 주를 이뤘다. 1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대형 IPO는 ▲두산로보틱

스(4212억원) ▲에코프로머티(4193억) ▲DS단석(1220억원) ▲과두(1938억원) 등 4곳이다. 1조원 이상의 초대형 IPO는 없었다.

수요예측도 흥행했다.

수요예측참여기관수는 1507개사로 전년 대비 54.4%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관 가운데 운용사(펀드)가 가장 많이 늘었고, 외국인 증가율도 높았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925대 1로 전년 대비 10.6% 높아졌다. 주금납입능력확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경쟁률이 이전 대비 절반으로 낮아졌다.

수요예측에서는 상단초과 공모 희망 가격의 비중이 70%로 높아지면서 공모가가 밴드상단 이상(상단·상단초과)으로 확정된 비중도 74.4%로 전년 54.2% 대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밴드상단확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작년에는 상단초과 확정(47.6%)이 밴드상단 확정(26.8%)을 넘어섰다. 제시된 공모가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공모가가 확정된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는 0건, 하반기에는 2건에 불과했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 우선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6.4%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기관투자자 배정은 ▲운용사(펀드)(56.8%) ▲외국인(11.1%) ▲기타(투자일임업자 등, 20.6%) ▲연기금·은행 등(7.8%) 순이다. 운용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예수 확약 비율(14.8%)로 수요예측 물량(39.8%) 대비 배정 물량이 더 많았다.

금감원은 “IPO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변동 위험도 확대됐다”며 “투자자들은 공모주의 높은 가격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미래에셋 글로벌엑스, ETF 진출 15주년

ETF 산업 선두주자 성장 기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TF 운용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가 ETF 시장 진출 15주년을 맞이했다.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은 글로벌엑스는 이제 ETF 산업의 확실한 선두주자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글로벌엑스의 첫 ETF 상장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 ETF 시장으로 전 세계 ETF 운용사들에게는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운용사

들이 끊임없이 진출을 도전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미국 시장에서 라이징스타로 주목받던 글로벌엑스를 인수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글로벌 ETF 운용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법인을 확장하는 동시에 2011년 캐나다 ‘Horizons ETFs’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Global X’,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현 Global X Australia)’ 등 ETF 운용사 인수 합병(M&A)을 추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인수 당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엑스의 첫 ETF 상장 15주년 기념행사 사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시 8조원 수준이었던 운용자산(AUM) 규모는 현재 56조원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엑스는 최근 ‘글로벌 Top Tier ETF Provider’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증권, 세무·부동산 특화 컨설팅 제공

초고액 자산가 대상 ‘Tax센터’ 신설

삼성증권은 금융투자를 비롯해 절세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Tax센터’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올해 초 삼성증권이 개점한 패밀리오피스 전담지점 ‘SNI패밀리오피스센터’의 초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상대로 세무 및 부동산에 특화된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Tax센터장에는 초부유층 자산가들의 기업승계와 절세 플랜 전반을 총괄해온 세무학박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예나 센터장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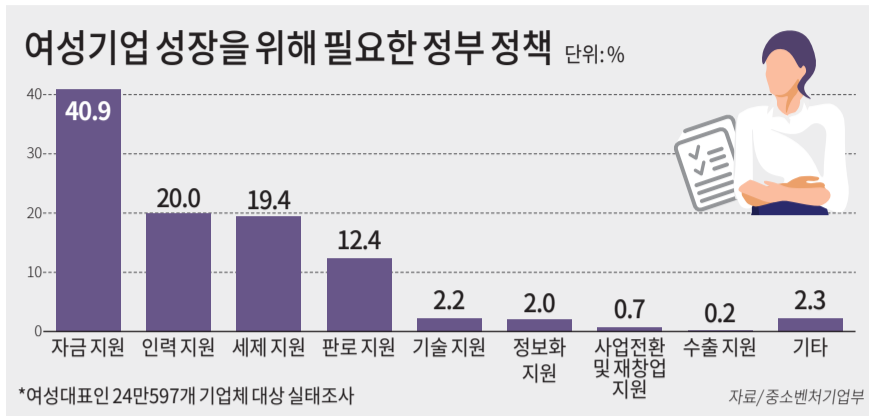
센터는 세무·부동산·포트폴리오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를 고려할 때 가족의 재산, 나이, 상황을 고려해 최우 효율용방안이나 매입·매각 전략 수립, 절세 플랜 등 다양한 방향의 니즈를 컨설팅한다. 또한 세계적인 부동산 종합서비스회사인 CBRE, Knight Frank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부동산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세무 측면에서는 금융투자, 증여·상속, 부동산 관련 등 맞춤형 절세전략 제안, 국내 및 해외 조세이슈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한다. /원관희 기자



# 순익 늘고 부채 줄고... '3高 위기' 속 여성기업 경영 빛났다

(고환율·고물가·고유가)

중기부, 24만여곳 실태조사  
순이익률 4.7%→5.1% 늘어나  
1인당 매출액, 일반기업 보다 낮아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은 '자금'  
여성 CEO 강점 1순위 '섬세함'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대표되는 '3고' 위기 상황에서도 여성이 최고경영자(CEO)인 여성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빛났다.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자금지원'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여성CEO들은 '남성기업인 대비 불리한 분야'로 '일·가정 양립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정책관 27일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2022년 기준)에서 나왔다.

조사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여성이 대표자인 24만59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들은 전년 (2021년)에 비해 수익성(순이익률 4.7→5.1%), 안정성(부채비율 165.1→135.2%), 활동성(자기자본 회전율 2.1→2.2배)이 모두 좋아졌다. 다만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억3200만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중소제조업만 놓고봐도 여성기업은 일반제조업에 비해 경영 상태가 양호했다. 순이익률은 여성 4.3%, 일반 4.1%, 부채비율은 여성 106.6%, 일반

125.2%, 자기자본 회전율은 여성 2.4배, 일반 2.2배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여성기업이 2억3690만원으로, 일반기업의 3억48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자금'을 꼽았다. 절반에 가까운 40.9%가 이같이 답했다. 이외에 ▲인력지원 20% ▲세제지원 19.4% ▲판로지원 12.4% 순이었다.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으로는 54.6%가 '전반적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인건비·원자재 등 비용증가 39.3% ▲업체 간 경쟁심화 37.7% 등도 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여성CEO들은 강점 1순위를 묻는 말에 '섬세함'이라고 답했다. 다만 '도전정신'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가장 불리한 분야로는 39.6%가 '일·가정 양립 부담'을 꼽았다.

또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제한'돼 '불리'하다는 답변은 2021년의 16.6%에서 2022년엔 26.6%로 더 늘었다.

중기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여성기업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면밀히 파악해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시몬스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130평 규모 'ESG 부스'

시몬스가 '2024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최대 규모의 ESG 랜드마크를 세운다.

27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올해로 29회를 맞는 리빙페어는 국내 리빙 및 인테리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신 리빙 디자인 트렌드의 방향성을 제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라이프스타일 박람회다. 28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며 450여 개 국내외 기업 및 브랜드가 참여한다.

지난 2022년에 처음 참가한 시몬스는 참여 기업 중 가장 큰 약 130평 규모의 ESG 부스를 꾸민다. 부스의 주제는 'THE GREATER TOGETHER'로 전시존과 제품존으로 구성한다.

전시존에선 총 32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경에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부사장, 박원정 러쉬 코리아 에티크스 디렉터,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장 등 재계·학계·연구기관 각 계각층에서 활약하는 ESG 커뮤니케이터 22인의 특별 인터뷰를 관람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소비진작·내수 활성화 '미리 온 동행축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봄을 앞두고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2024 봄맞이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 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컨셉으로 기획했다.

행사 기간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선 행사 분위기 조성 및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각 제품군별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3월 1~2주 학용품·가방·뷰티, 2~3주 홈·리빙·식품, 3~4주 패션·스포츠·취미 분야 제품을 각각 할인 판매한다.

/김승호 기자

# 한국인, 연간 커피 405잔 마신다... '홈카페' 열풍 이어가

관세청, 작년 커피 수입액 1.5조  
성인 기준 하루 1.3잔 소비 규모

일리카페코리아 "홈카페, 성숙기"  
팬데믹 3년간 매출 600% 급증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커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할 때 한국인의 커피사랑은 꼭 등장한다. 골목마다 있는 카페, 한겨울에도 고수하는 아이스커피 선호 등 커피를 둘러싼 다양한 한국 문화는 커피 종주국들조차 놀랄 정도다. 카페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된 커피 문화가 팬데믹에 이어 다시 '홈카페'로 전환하고 있다. 장기화 한 고물가와 고급화한 입맛이 직접 자신의 취향에 맞춘 커피를 저렴히 즐기려는 수요로 나타나며 세계 유수의 커피머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치열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생두·원두) 수입액이 11억1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5년 전 대비 1.7배, 10년 전 대비 2.7배가 늘어난 규모다. 수입량은 19만 3000톤(t)으로 5년 전 대비 22% 늘었는데, 이는 성인 한 명이 하루 약 1.3잔 소비할 수 있는 규모다.

국내 커피 시장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카페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커피 문화가 홈카페라는 이름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초기 수천 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가 유행한 것을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가정용 커피머신 시장이 성장했다.

일리카페코리아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이 600% 급성장해 이탈리아 본사에서 한국시장을 세계 평균 범주 외에 돌 정도다. 현재 업계는 가정용 커피머신 시장이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접어드는 단계로 보고 있다. 캡슐커피 머신으로 입문한 소비자들이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한 자동·반자동 프리미엄 머신으

로 눈길을 돌리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

고 말한다. 프리미엄 커피머신 시장은 주로 전통적인 커피머신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바리스타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글로벌 캠페인 등 커피에 관한 전문성을 심분 살릴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며 마니아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브레빌코리아는 이달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4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KNBC)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했다. 가정용 커피머신을 만드는 기업임에도 상업용 머신으로 진행되는 대회 후원에 참여한 데에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 성장에 따른 브

레빌의 프리미엄 머신 수요 진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네스프레소는 국내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버추오 더블에스프레소' 캠페인을 별도로 마련했다. 국내 소비자의 취향인 깊고 진한 풍미를 가진 버추오 더블에스프레소 라인업은 지난 캠페인 설문조사에서 네스프레소 클럽 멤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드롱기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월 신제품 '라스페셜리스타 콜드브루' 팝업 스토어를 더현대서울에서 열고 전문 바리스타 시연을 진행했다. 신제품 라스페셜리스타 콜드브루는 세계 최초로 콜드브루 추출 기술이 적용된 반자동 커피머신으로,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내 드롱기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독일 프리미엄 가전 밀레의 한국 법인 밀레코리아는 오는 4일부터 커피머신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밀레 커피머신을 새 것처럼 쓸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점검 서비스다. 밀레코리아 서비스 테크니션을 통해 보유한 모델(CVA 7840, CVA 7845 제외)의 작동 상태를 점검 받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네이버 뉴스, 총선거간 지역언론사 기사 강화

서울 이외 16개 시·도 110여곳 대상

네이버는 다음 달 오픈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에 지역언론사 뉴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총선 특집 페이지에서 지역별 선거 뉴스를 최신순으로 볼 수 있는 '지역 언

론사 뉴스'는 지난 21일 '뉴스혁신포럼' 회의를 통해 나온 첫 개선 권고책이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지난 1월 발족했다.

권고책에 따라 네이버는 총선 특집페

이지내 '최신뉴스' 코너에서 시·도 지역별로 기사를 구분해 노출해, 각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욱 밀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 언론사 뉴스'는 서울 이외의 부산, 대구, 인천 등 16개 시·도 110여개 검색 제휴 지역 언론사가 대상이며, 각 지역 기사는 해당 지역의 언론사가

선거 섹션으로 분류한 기사들로 한시적으로 서비스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 통합검색 영역에서도 지역 분류 기반으로 지역 언론사의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별' 검색 상세 옵션이 추가된다.

'지역언론사별'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콘텐츠 제휴 지역지 최대 12곳을 포함해 총 120여개 지역 언론사의 기사로 뉴스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못난이 과일 공급 확대... 축·수산물 할인 지속

과일 수요 분산위해 수입과일 늘려  
한우·한돈 최대 50% 할인행사 계속  
올 과일 실패없도록 생육관리 강화

최근 과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사과·배 등의 비정형과(못난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과일(파인애플·망고 등)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솟은 채소 값과 관련해서는 노지채소를 선제적으로 비축·방출하고, 시설채소의 출하 촉진 및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 및 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 촉진에 나선다. 농협 및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저장물량은 오는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비정형과 판촉계획은 하나로마트가 사과 400톤과 배 100톤, 이마트가 사과



이달 상순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과일 선물세트. /뉴시스

150톤, 홈플러스가 사과 50톤과 배 10톤, 롯데마트가 사과 200톤 등이다.

또 “물량이 부족한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수입과일 판매 수요 물량을 파악해 할당관세도 입물량을 충분히 배정한다. 대형유통업체에도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해 수입과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4월 수입과일의 대형마트 배정량은 총 2만 톤(바나나 1만3000톤, 파인애플 3600톤, 자몽 300톤, 망고 1800톤, 아보카도 500톤)이다.

채소는 배추·무 저장출하기인 3~5

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2월 중 배추 2000톤, 무 6000톤을 추가로 비축한다. 가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우천 등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어려워 가격이 높은 대파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직접 낮출 예정이다.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높은 오이와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출하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딸기는 비정형과 할인 특판 행사를 추진해 수요를 분산하고, 3월 이

후 출하가 시작되는 참외, 수박 등 대체과일의 생산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등심을 비롯해 국거리·불고기류 등을 평소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연장된다.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20~4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월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함께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3월22일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무역협회

##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취임 “수출 증대에 올인할 것”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무역협은 27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윤 전 장관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무역협은 앞서 지난 16일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윤 전 장관을 신임 회장 후보로 추대했다.

윤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무역의 활력을 되찾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역협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증대에 올인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무역업계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애로 사항 발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 개선 추진 △민간간 통상활동 강화 등을 무역협의 향후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케팅·금융·물류·해외 인증 등 업계 주요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여건 변화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 온라인유통 매출 27개월만에 최대 성장

1월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8.2% ↑  
대형마트 9.2% ↓... 설 특수 2월 분산  
편의점, 음료·가공 등 전 품목 호조세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27개월 만에 최대치 성장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설 특수가 2월로 분산된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14.5조원) 대비 8.2% 증가한 1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매출 증가폭은 2021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대치다. 온라인 매출은 서비스/기타(24.7%), 식품

(22.4%), 생활/가정(18.6%)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휴대폰 신기종 사전예약 프로모션으로 가전·전자 품목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고, 설 명절 여행상품·선물 예약수요 증가,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간편식 판매 증가 등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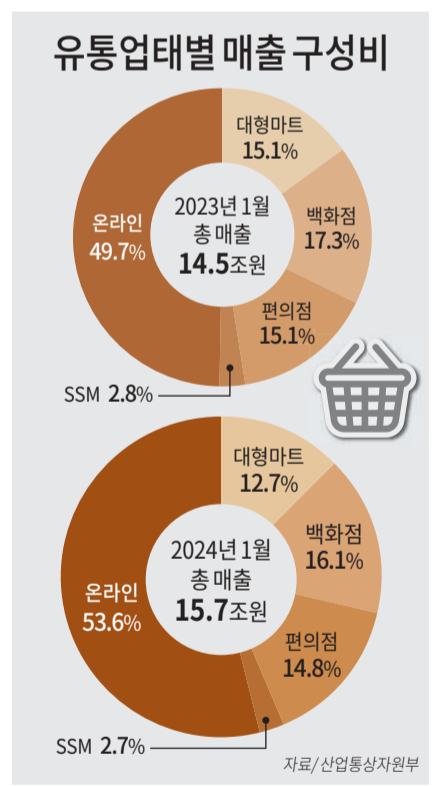
오프라인 매출은 백화점(0.7%), 편의점(6.1%), 준대규모점포(SSM, 7.1%) 등에서 상승했지만, 설 특수가 2월로 분산되면서 대형마트(-9.2%) 매출이 큰 폭 하락하며 전체 0.3%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잡화(-21.3%), 가정/생활(-19.4%), 스포츠

(-18.6%) 등 품목에서 두드러졌다. 백화점 매출은 의류·패션 부문이 부진했으나 가정용품, 해외유명브랜드 판매 증가로 소폭 증가했다.

편의점 매출은 근거리 소액 쇼핑·집밥족이 늘며 즉석식품, 음료·가공식품 등 전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SSM 매출은 농수산물, 신선/조리식품 등 식품 부문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매건수는 대형마트·백화점은 하락했으나 편의점·SSM은 증가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5.9%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백화점은 상승했으나, 대형마트·편의점·SSM은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5.6% 줄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이차전지 고농도 폐수처리 지원 논의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토론회  
‘민관합동 기술지원반’ 운영 방침

환경부가 26일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해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비엔디파트너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해양 방류 허용범위 및 개선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의 특성과 처리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염 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염 증명 제도란 염폐수의 성분이 주로 바닷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생태독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양 방류를 허용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으로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등에서 고농도 염폐수 배출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폐수 특성

상 생물학적 처리 등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가 급속 회수,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지금보다 경제적·환경적인 염폐수 처리기술이 이차전지 업계에 필요할 것으로 봤다”며 “염 방류수가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수산 등 해양활동에 미칠 영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이날 제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오는 27일에도 이차전지 폐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산업계,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

이다.

이를 통해 고염폐수 처리기술 연구 개발(R&D) 지원 및 영 증명 지침서 마련을 추진하고,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기업 현장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는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의 부담 완화와 처리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소통하면서 이차전지 폐수로 인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고용부 청년 빠른 취업·적응 지원 구직자 일학습병행제 신설

정부가 구직 청년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다. 이성의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서울 서초구 소재 평화이츠를 방문, 일학습 병행제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0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는 그간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해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 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후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 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b>김명규</b>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b>윤건수</b>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b>이장규</b>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b>Robert Coppes</b> Prof 강연2: <b>Ryuichi Okamoto</b> Prof 강연3: <b>유종만</b> 오가노이드사이언스대표 강연4: <b>손미영</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b>임승원</b>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 부산시, 해빙기 취약시설 1328곳 안전점검

급경사지·산사태취약지 등 대상 안전등급 D·E등급 시설 별도 점검 토목·건축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부산시

부산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4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먼저 시는 취약시설 1328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구·군이 지난 15일부터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5일까지 이어간다. 침하·균열·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성 여부 및 옹벽·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지 1328곳은 유형별로 ▲ 급경사지 787곳 ▲ 산사태 취약지 386곳 ▲ 건설 현장 109곳 ▲ 옹벽 27곳 ▲ 사면 11곳 ▲ 기타 8곳이다.

점검 대상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교량 2곳과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11곳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기관별 점검을 별도 추진한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등에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지난 26일부터 건설 현장, 옹벽 등 해빙기 취약시설로 선정된 155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급경사지(787곳,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와 산사태 취약지(386곳,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빈틈없는 해빙기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구·군 등 유관 기관과 점검 회의를 선제 진행, 기관별 관리 대상과 대처 사항을 공유하고 상황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 확보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급경사지를 신규 발굴하고 해빙기 안전 관리 요령 전파, 공익광고 제작·송출과 같은 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안전 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근본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블랙튠그룹과 담양 딸기 시험재배, 면적 확대 방안 논의하며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블랙튠그룹 본사에서 담양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 담양군 중동서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

담양군은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블랙튠그룹 본사에서 담양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담양군은 담양육성 딸기 시험 재배를 위한 우량모 공급과 기술 지원 방안 마련을, 블랙튠그룹은 시험재배 결과 공유 및 향후 재배 면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담양딸기는 미국, 홍콩, 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르를 포함한 중동시장에서도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 “아이 1인당 최대 2.6억 단계적 지원”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영암군,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한다

지역사회 육아 돌봄체계 구축 등 양육 패러다임 혁신하는 역점 시책 7개 분야 49개 사업... 2924억 투입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인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취지로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영암 아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출산장려금’과 ‘가족 돌봄’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축으로 양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영암군의 역

점 시책이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환경 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2028년까지 영암군 17개 부서가 2924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암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 따라 영암군은 아이 1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최대치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236억으로 11개 분야 사업 진행 우주항공社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천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주항공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236억 원 사업비로 11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소재부품의 국산화 실현을 앞당기고 우주항공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항공산업 지원단 운영 ▲우주항공분야 전략기업 육성지원 등이다.

또 ▲방산기업 육성지원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 ▲우주항공부품기업 경영진단 지원 ▲항공부품기업 시험인증 수수료 지원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된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관내 우주항공기업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교통안전시설 확충... 120억 투입

경상남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대비(29건, 사망자 1명), 2023년(22건, 사망자 0명) 24% 감소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750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며, 도는 지난해에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우선 학교 인근 보도가 없는 구간에 학교용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7개소 조성한다. 학교 담장, 축대,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해 보도를 신설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종점 노면표시 등 191개소, 노란색 횡단보도 480개소, 스마트 안전시설 30개소를 설치해 시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신호기 26개소, 방호울타리 16개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등하굣길 통학환경을 지속개선해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몽골 모노스그룹 회장 일행이 경북형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공동연구 및 산업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경북도를 방문했다. 앞줄 우측 네 번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청 전정에서 단체 기념촬영에 나섰다. /경북도

## 몽골과 ‘경북형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협력 논의

이철우, 모노스그룹 회장 접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루브산 쿠렐바타르(LUVSANKHURELBAATAR) 몽골 모노스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경북형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관련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모노스그룹 회장단을 비롯해 주한몽골대사관 서기관, 영덕군수, 대구한의대 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북도-영덕군-몽골 모노스그룹-대구한의대학교’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몽골 모노스그룹은 몽골 최초의 10개 비상장 기업으로 설립하였으며 제약, 유통, 코스메틱, 건설 등 36개 계열사와 25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몽골의 10대 그룹 중 하나이다.

이철우 도지사와 몽골 모노스그룹 회장은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K-한방에듀팜 단지 조성(큐브형 스마트 식물공장)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공동캠퍼스 설립에 관해 논의하며 이후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 하동군 섬진강 쌀 美 수출 선적식 성료

하동군은 27일 하동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주최로 ‘별천지하동 섬진강 쌀’의 미국 수출을 위한 첫 번째 선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적된 쌀은 총 35톤으로, 약 5만 3000달러(약 7059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쌀은 국내 최대 농산물 수출 기업인 희창물산이 운영하는 ‘H-Mart’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170억 발행

포항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이하 포항사랑카드) 170억 원을 발행해 3월 상시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을 위해 사용과 충전이 편리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부정 유통도 방지할 수 있는 포항사랑카드 170억 원을 발행해 내달 4일부터 7% 할인판매로 진행된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안동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40억 투입

안동시는 근로 능력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33억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16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해 200여 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선형성 지원사업에도 7억 원을 지원한다.

자활사업은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으로 구분되며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외 다른 사업은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 가공식품 가격 잡았더니 신선식품이 ‘들썩’ 정부, 물가안정 ‘할인행사’ 카드

라면 3사 역대 ‘최대실적’

**농심** 작년 영업이익 2121억 89% ↑  
**삼양식품** 1468억 기록 62% 상승  
**오뚜기** 2549억 전년비 37% 올라  
물가 2.8% 오를때 농산물 15% ↑  
농식품부, 내달 전국서 한우 할인

식품업계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신선식품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계는 지난해 외식 물가 부담에 가공식품 소비가 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주요 라면 3사인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120억 6474만원으로 전년 대비 89.1% 늘었다. 매출액은 3조4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은 1468억2347만원으로 전년 대비 62.46% 늘었고, 매출액은 1조192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23% 증가했다. 오뚜기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했다. 오뚜기 지난해 영업이익은 2548억9384만원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했고 매출액은 3조4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제과·빙과 업계도 선방했다. 롯데웰푸드는 전년 대비 30.8% 증가한 17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빙그레는 전년 대비 185.2% 성장한 112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식품업계는 당분간 가공식품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짬짬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월 10일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다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과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장기간 가격 동결은 어려워 보인다.

신선식품 물가는 지난해 추석 이후로 꾸준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의 장비구니 부담을 키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2.8%만 올랐지만 농산물은 15.4% 올랐다. 지난해 12월(15.7%)에 이어 두달 연속 1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일이 26.9% 올라 2011년 1월(31.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대표 품목인 사과와 배는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각각 89.5%, 51.2%가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가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과 ‘정부비축오징어·참조기 짬짬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다음 달 3일까지 소비자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정부와 유통업체가 협력해 자체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대응할 계획이다.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한다.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과일수입업체에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300억원을 들여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대상 할인 지원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지난 26일 충북 진천 (주)삼진푸드 본사에서 열린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서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정배 대상(주) 대표이사, 신용운 (주)삼진푸드 대표이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

## 대상, 고용노동부와 ‘협력사 상생’ 약속

지자체-기업 협력, 고용부 지원  
식품업계 최초 공동선언식 진행

종합식품회사대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대상은 지난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삼진푸드 본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신용운 삼진푸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복지, 안전을 주요 골자로 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진푸드는 대상의 협력사 중 한 곳이다.

상생협력공동선언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역 단위로 진행하는 상생 모델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4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식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게 됐다.

공동선언문에 따라 대상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고, 숙련인력 확보, 전문성·생산성 향상 등 기술경쟁력 제고에 협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관계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협력업체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 등 대상이 추진하는 협력방안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실행으로 식품제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신원선 기자

# 농심, 업계 첫 국가무형유산 지원 나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 맺어  
“지속가능 전통문화 이수활동 지원”

농심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의 활동 기반 확장과 무형유산 가치 제고에 나선다.

농심은 전날 경북공에서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하는 K-무형유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의 근간인 국내 무형유산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총 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식품업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개인 기준)는 인간문화재라고 불리는 보유



지난 26일, 경북공 흥복전에서 농심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왼쪽), 문영철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직무대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심

자와 전승교육사, 이수자로 나뉘며 그중 이수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 활동하는 이수자는 등록인원 7000여명 중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농심 이병학 대표

이사는 “최근 전세계 K컬처 및 K푸드 열풍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해외 교민에게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주고 있다”며 “이제 무형유산이 또 다른 K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수자들의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 이수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무형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전통문화 팝업행사를 개최하고, 이수자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전통 굿즈 개발도 지원한다.

전통굿즈 개발 지원은 이수자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다. 농심의 지원금으로 전통문화 굿즈를 개발하고, 굿즈 판매 수익금으로 전승활동비는 물론 새로운 굿즈 개발비로 활용하는 구조다. /신원선 기자

## 지그재그, 헤어기기 ‘유닉스’ 쇼케이스

내달 11일까지 최대 51% 할인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고객의 생활양식을 충족하기 위한 행사를 선보인다.

지그재그는 헤어기기 브랜드 ‘유닉스’ 단독 프리미엄 쇼케이스가 오는 3월 11일까지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지그재그는 ‘하루를 완성하는 나만의 스타일링 메이트’라는 주제로 인기 제품을 최대 51% 할인 판매한다. 주요 제품을 포함한 일부 제품은 지그재그의 빠른 배송 서비스인 ‘직진배송’으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새벽배송도 가능하다.

최근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홈살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홈살롱’은 헤어 스타일링, 헤어 관리 등을 집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지그재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 기준 고데기, 드라이어 등 헤어기기 제품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검색량은 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그재그는 2030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닉스의 기술력이 집약된 에어샷 랩모션, 디오 무소음 드라이어 등을 지그재그 전용 특가로 소개한다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4족보행 로봇 투입

‘스팟’ 송도점서 안전관리·순찰

현대백화점은 내달 9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의 안전 관리 및 순찰 업무에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시범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팟’은 아울렛 1층과 2층을 비롯해 후방의 직원 동선 등을 순찰하게 된다.

내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상 고온·가스 누출 등을 모니터링하며, 폐점 후에는 외부인 무단침입 등 위험요소를 감지해 안전 관리 직원에게 알람을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번 시범운영은 현대백화점과 로봇 관제 시스템 개발사인 플로리젠 로보틱스, 로봇 렌탈 기업 한국렌탈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26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폐점 후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2층 복도를 순찰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 홈플러스, 양 늘린 ‘닭강정’ 리뉴얼 출시

홈플러스가 높은 외식 물가에 가성비 좋은 간편식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소스의 맛과 원육 함량 등 품질을 대폭 높인 델리 닭강정 제품을 선보인다.

리뉴얼한 제품은 ‘홈플러스’ ▲한판 닭강정 ▲매콤간판닭강정 ▲허니순살 닭강정 ▲버라이어티닭강정 3종과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용량 상품 ‘지금 한끼’ ▲허니닭강정 ▲양념닭강정 ▲크림닭강정이다.

닭다리살 원육 함량을 늘리고, 오래 끓여 더 깊은 맛을 내는 홈플러스만의 특제 소스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꾸덕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홈플러스 닭강정’은 1만5990원, ‘버라이어티닭강정 3종’은 1만990원, ‘지금한끼 닭강정’은 4390원 등 유명 맛집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韓 제약사, 뇌기능 개선제 '니세르골린' 주도권 경쟁 치열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제로 주목  
종근당, 넥스콜린정30mg 품목 허가  
현대약품·보령 등 15곳 허가 획득

국내 뇌 기능 개선제 시장에서 니세르골린 제제 품목허가가 확대되고 있다. 제약 업계에서는 니세르골린 성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과 적응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체제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넥스콜린정30mg(성분명: 니세르골린)'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니세르골린은 용량은 5·10·30mg 등 3가지다. 니세르골린 제제 5mg과 10mg은 뇌 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 저하 개선, 노인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효과가 있다.



한미약품에서 출시한 니세르골린 제제의 뇌기능 개선제 '니세르골린' 제품 모습. /한미약품

니세르골린 30mg은 일차성 퇴행성 혈관 치매 및 복합성 치매와 관련된 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적극성 부족 등의 일차적 치료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니세르골린정30mg(성분명: 니세르골린)'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최근까지 니세르골린 성분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 회사는 현대약품, 보

령 등 15곳에 이른다.

현재 뇌 기능 개선제와 관련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료제 시장에서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대웅바이오는 해당 시장 점유율을 24.8%, 종근당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 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사용된다.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 장애, 집중력 감소 등에 효능을 갖는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니세르골린 제제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유효성 논란 및 급여축소·삭제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일부 효능 미입증으로 인해 허가 사항 내 치료범위가 축소·변경됐고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비중을 줄이면서 현재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련 업체들은 니세르골린의 시장성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큐와이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니세르골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6.6% 성장해 오는 2029년 23억 5470만 달러(약 3조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니세르골린 제제는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의 의약품이다. 환인제약, 알보젠코리아, 하나제약 등은 오는 3월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바이오의약품협회 정기총회 제5대 이사장에 오상훈 선출

국내 대표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사진)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오 대표는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장(상무), 삼성화재해상보험 미국법인 대표이사를 거치면서 재무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영 노하우를 축적했다. 지난 2016년 차헬스시스템스 USA의 대표이사를 맡아 미국내 차병원 의료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경영을 총괄했다. 2019년 차바이오텍 대표로 취임해 국내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제대혈 보관사업과 유전체 분석·진단 사업 등 사업부문의 글로벌 확장과 수익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립된 약사법 및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세경 기자

## 인벤티지랩, LNP 제조장비 국내 첫 개발

자체개발 핸디진 쇼케이스 개최  
연구소 등 20여개 기관 초청 진행

인벤티지랩이 국내 처음으로 지질 나노입자(LNP)를 생산할 수 있는 단일장비를 개발, LNP 유전자치료제 개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 연구단계부터 비임상, 초기임상 시료 생산까지 가능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인벤티지랩은 오는 28일 판교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LNP 제조장비인 '핸디진(HANDYGENE)'의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핸디진 쇼케이스 2024'는 현재 인벤티지랩과 제휴관계에 있는 바이오 제약사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의 대기업 및 연구소 등 약 20여개 기관을 초청해 진행한다. 핸디진 제조·품질관리기준(GMP)는 해당 라인업의 첫 번째 장비로 마이크로플루이드



인벤티지랩이 개발한 'HANDYGENE™'

기반의 플랫폼 기술인 '진플루이드(GeneFluidic)'를 적용한 LNP 제조 장비 시스템이다. LNP 후보제형 도출의 연구단계부터 비임상, 초기임상 시료 생산까지 가능해 바이오 생산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스케일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처럼 나노입자를 만드는 전공정과

그 나노입자를 안정화시키고 농축하는 후공정을 통합한 LNP 단일 장비는 핸디진 GMP가 업계 최첨단. 또한, 핸디진 GMP는 기존의 다른 연구개발 단계의 장비와 달리 제조 소모품 파트가 모두 GMP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전후공정 통합장비인 점도 특징점으로 꼽힌다.

인벤티지랩은 정교한 소량의 샘플 생산을 위해 실험실 스케일의 '핸디진랩' 개발도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양산이 가능한 '핸디진 커머셜' 모델은 올해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LNP 제조의 연구·비임상·임상-GMP 양산에 이르는 전주기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또 국내외 CGT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형연구 및 시료 생산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 및 장비 구축 모델을 통한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앞줄 왼쪽 두 번째)과 차세대 리더 협의회 '상상주니어보드 3기' 구성원이 이날 진행된 해단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G

## KT&G '상상주니어보드' 조직문화 혁신 경영제언

KT&G의 차세대 리더 협의회 '상상주니어보드'가 경영진에게 직접 경영제언을 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미팅에서는 출산과 육아, 일과 삶의 균형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D&I)' 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상상주니어보드 3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10개월 간 상상주니어보드 3기는 '글로벌 톱 티어' 미래 비전에 대한 내부 공감대 강화 활동을 비롯해 'CEO 타운홀 미팅', '신규 입사자 온보딩 콘텐츠', '분야별 우수 리더 선발' 등 조직문화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다.

한편 KT&G는 지난 2021년 5월, 기존의 조직문화 개선 기구인 '상상실현위원회'를 개편하여 2030 구성원 중심의 '상상주니어보드' 1기를 출범했다. '상상주니어보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경영진과 소통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선진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KT&G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워라벨 실천 우수기업'과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으며,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이후 계속해서 재인증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유한양행, 161명에 1년 등록금 43억 장학금 지원

유일한 박사 인재 육성 뜻 이어

유한양행이 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유한재단이 지난 23일 유한양행 4층 대강당에서 '2024년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권예린 등 161명으로 1년 등록금을 두 학기에 나눠 지급받는다. 2024년 장학금 규모는 1, 2학기 합쳐 총 43억 원이다.

독립운동가, 혁신적 기업가, 선구적인 교육가로서 그 삶을 살아온 고



지난 23일 유한양행은 '2024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재단은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유한재단은 지난 1970년부터 올해까

지 55년 동안 매년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다. 장학금 수혜자는 연인원 8000여 명에 이르고 지원금액은 총 260여 억 원에 이른다.

/이청하 기자

## CNP 초저점도 무중력 선크림 애프터-레이 쿨링 선크림

LG생활건강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가 초저점도·초경량 자외선 차단제를 선보인다.

LG생활건강은 CNP에서 '애프터-레이 쿨링 선크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CNP 선제품 대비 평균 점도가 84% 낮은 액상 제형으로, 피부에 얇게 밀착된다. 끈적임이나 무거운 사용감을 개선했다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뭉침이나 백탁 현상이 없어 여러 번 덧발라 사용하기도 적합하다. SPF50+/PA++++ 등급의 자외선 차단력도 갖췄다.

뿐만 아니라 '애프터-레이 쿨링 선크림'은 약해진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리페어 펩타이드와 글루-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즉각적인 냉각 효과로 피부 온도를 낮춰 자극받은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조약돌 형상의 용기 디자인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2중 밀폐 구조는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고 동시에 원하는 만큼 사용량을 조절해 준다.

/이청하 기자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감/연/론  
**NEWSIS**

##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



신세철의  
쉬운경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생산과 유통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일이고 다음은 부가가치가 높아질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거두는 길이다. 실물상품의 효용가치 또는 희소가치는 주관적이어서 적정가치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는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가치와 가격이 변동하므로 객관적(내재)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이 같을 때 가격과 가치는 균형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본질가치를 크게 벗어나 상승해도 문제, 하락해도 경제질서를 교란한다. 가격은 외부 개입이 없는 투명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투자 대상 자산의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의 불균형이 확대되면 자

본이익(capital gain)의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자본손실(capital loss) 위기가 도사린다. 가치 투자자들은 대체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을 때 상품을 확보했다가 시장가격이 본질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익을 거둔다. 가치와 관계없이 시간차 또는 시장간 가격 차이 변동을 틈타 남다른 특별이익을 보려고 몰려다니다 오히려 특별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기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은 까닭이다.

효율적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이 동떨어져 일시적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반복되는 시장청산(market clearing) 과정을 거쳐 가치와 가격은 균형을 되찾아 간다. 시장에서 매수·매도 의견이 엇갈리며 균형을 이탈하다가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쉬지 않고 반복하며 적정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한다. 외부로부터 불확실성이 초래되어도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스스로 충격을 극복해 간다. 앞으로 AI가 계속 발달하여 초능력이자 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져 사

고팔 필요가 없어진다. 시장이 무의미해지고 자본주의 경제는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 사태의 원인은 크게 보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시장 심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초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이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발생하기 쉽다. 다음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는 정부가 빚인가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부려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발생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기에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기 마련이다.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이 한계를 벗어나면 위험과 불확실성을 잉태하다가 심해지면 경제위기로 진행되기 쉽다.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억누르는 것을 능사로 여기기가 쉽다는 점이다.

/경제칼럼니스트

# 헛소문에 흔들리지 말자, K칩



김재웅의  
김재웅 (산업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거래 끊겠다 선언’ 충격적인 짜라시는 순식간에 온라인 공간을 달궜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신뢰를 잃고 HBM 협력도 중단한다는 내용, 실존 인물 이름까지 등장해 믿을 수 밖에 없게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또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나쁜 짜라시였다. 엔비디아가 문제를 삼은 이유가 5년도 더 전에 양산했던 제품, 아직 생산을 하는 게 더 신기할법한 구세대에 사용하던 칩이다. 내부 사정을 아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포했거나, 사실이라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하는 모양새였다. 반도체 업계 이야기는 중국과 미국, 대

만에서 특히 많이 쏟아진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보도가 나오면 관련 부서 구성원 스마트폰을 모두 압수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보안이 철저하다.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알아도 모른척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반도체 업계 소식은 대부분 국내 업계, 특히 삼성전자에 부정적이다. 삼성전자 수율이 떨어졌다, 기술력이 뒤처졌다, 거래가 끊겼다는 등 당장이라도 망할 것같은 이야기가 많다. 국내에서조차 삼성전자 제품을 근거없이 낙인 찍어 불매를 유도하고 비슷한 해외 제품을 주저세우는 기묘한 광경까지 연출된다.

실제 확인해보면 대부분 사실과 정반대다. 여러 현직자 말을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최소한 메모리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지키고 있다. 깊이나 높이, 구조 등에서 경쟁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가 됐다. 웨이퍼 베벨 관리 등 다양한 노하우로 수율 확보에서도 충분히 ‘초격차’

를 벌렸다. 마이크론은 이제 경쟁 조차 되지 못할 정도, SK하이닉스만이 더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만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가 ‘눈엍가시’라서일테다. 반도체 업계 역사를 다룬 책이나 문헌을 보다보면 삼성전자를 마치 악덕 기업처럼 묘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강력한 경쟁자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성장한 삼성전자, 한국 반도체 산업을 낮춰보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해외 목소리를 그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쉽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하청국가로 남길 바라는 해외 경쟁사 및 헛소문들과 고군분투하는 상황, 우리만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렵지, 걱정스럽게 당부해본다.

/juk@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2월 28일 (음 1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운에서 변화가 오는 시기이다. **48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는 날. **60년생** 주변 사람과 의견 차이로 약간의 이견이. **72년생** 재물의 기운이니 도전하라. **84년생** 삼재발난이라 했으니 삼재 기도로 상해를 시켜보는 것도.
- 37년생** 과한 운동을 삼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 **49년생** 종일 기쁜 일이나 계획을 세워서. **61년생** 큰 그림을 그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73년생** 게으르지 않으면 나쁜 부분이 제거된다. **85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온다.
- 38년생** 내 것이 작아 보이나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50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62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주니 아랫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자. **74년생** 강단 있게 진행하라. **86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라.
- 39년생** 같은 때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51년생** 중심을 잘 세워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63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며 실속도 있고 이익이 있다. **75년생** 조금은 둔감하게 살 필요가. **87년생**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결과가 온다.
- 40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니 감사하다. **52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도 외면하는 법. **64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76년생** 열등감에 고민하지는 말도록. **88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달빛이 위로로 주는 날.
- 41년생** 사공이 많아서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53년생** 가족과 유례 상쾌한 날이다. **65년생** 일이 어려우나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77년생** 인내가 행복한 삶을 부른다. **89년생** 가뭄에 단비 오듯 착 풀린다.
- 42년생** 우물이 곁에 있어도 두레박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 **54년생** 배우자와 합의 늘 맞지 않는다. **66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본인이나 자신감을 느끼자. **78년생** 예민함을 바래라. **90년생** 남자 친구와 이별에 그리 아쉬워할 일은 아니다.
- 43년생** 상대의 단점을 막막하면 나에게 돌아온다. **55년생** 과거 신분적 사회에서 배운 기술을 이어받아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67년생** 기회가 오니 잘 잡자. **79년생** 남보다 못한 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91년생** 하루가 즐겁다.
- 4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날이니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히. **56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자재. **68년생**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 **80년생** 꽃은 저절로 피지 않는다. **92년생** 힘이라도 끝까지 살려보아 결과가 좋다.
- 45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저주는 것도 한 방법. **57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른다. **69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전이 필요. **81년생** 창업은 하되 신중히 계획. **93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라.
- 46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확 커질 수 있으니 주의. **58년생** 소통도 사람을 바가며 따라야 한다. **70년생** 손님이 오니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오느라. **82년생** 항상 운이 좋을 수는 없을 것. **94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려운 하루.
- 47년생** 무거운 일을 맡았어도 보람 있다. **59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일을 추진해라. **71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83년생**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95년생** 현대사회도 과거에도 그렇듯이 무속인은 직업이다.



## 김상회의四季 유병장수

질병의 고통 없이 나름의 무병장수는 모든 사람의 꿈일 거다. 그와는 좀 다르게 몸에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 어느날 월광사 신도중 50대 중반 K는 암 투병을 했다.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항상 조심하고 조심한다. 병원에 있으면서 K는 보양삼매론을 떠올렸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보양삼매론의 한 구절을 가슴에 품으면서 질병이 찾아왔으니 더 신경을 쓰고 더 자신을 돌보는 계기로 삼았다.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것이다.

필자도 상담할 때 보면 힘든 운세가 몰려오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쉽게 주저앉으며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일에도 크게 낙담하고 정말 크게 좌절하는 경우를 보았다. 부처님은 너무 편히 살기를 바라지 말라고 한다. 고난이 있으면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을 오르려면 비탈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산에도 힘든 길이 있는 법이다. 소나기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비바람이 멈추질 않는 시기 그런 운세의 길이 있다.

누군가는 힘든 일을 디딤돌로 만들어 더 높이 뛰어오른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만다. 세상살이의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한다.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화두를 던져주고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무병장수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병장수도 전화위복이다. 시련은 때로 힘겨운 일에 대한 맺집을 길러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알고리즘을 증가시키고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7	4
4		1	9	6	
	7		3		
	2	6	4	1	
		4		7	
		8	3	7	6
			9		2
		8	7	3	
2	5				6

6	9	8		4	
4		3		5	
		5		7	
		1			
	4		8	2	9
					1
					9
1			7		4
3			5		6
		9		3	5
				2	

9	8	6	1	7	8
9	7	1	8	2	8
2	7	8	9	6	5
2	9	7	2	1	8
8	8	2	9	6	1
6	1	5	7	8	9
1	6	2	9	8	7
8	9	6	2	1	8
7	2	8	9	2	6
2	9	8	1	6	7
1	2	9	7	9	6
8	6	7	8	9	2
9	7	6	1	5	8
8	1	2	6	2	8
9	8	2	9	2	1
7	8	2	9	1	8
6	9	1	9	8	2
2	2	9	7	8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서남권 대개조' 추진 계획 발표

# “권역내 산업혁신구역 적극 지정… 용적률 400%까지 완화”

####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공간 목표 온수산업, 첨단제조업 재구조화 금천 공군부대 용도 규제 해제

서울 서남권이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되살아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남권을 산업·주거공간 혁신에 녹색매력을 더한 '신경제·신생활 중심도시'로 바꾸는 도시 대개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서남권은 준공업지역 규제와 재생사업 위주의 도시개발로 발전 적기를 놓쳐 건물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누적돼 서울 전체 지역 중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해졌다”면서 “하나 서남권은 가용 부지가 많고 첨단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으며 서울 청년의 33%가 거주하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큰 지역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규제와 제도를 뜯어고쳐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인 서남권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개발하는 기존 준공업지역 규제를 개선해 산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기능 융복합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기업 유치·육성을 위해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도심 물류와 미래형 업무기능이



금천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조감도. /서울시

융합된 핵심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맞춤형 사전기획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온수산업단지', '금천 공군부대' 등 대규모 저이용 부지는 맞춤형 개발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동반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온수산업'은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푼다.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와 김포공항브

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노선도 구축한다. 연내 여의도에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 조성을 완료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UAM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주거혁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녹지와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 양천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 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적용해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신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킨다.

이날 오 시장은 서남권에 물길과 초록길을 넓혀 녹색감성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놴. 지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잇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둔치공간이 부족해 수변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뉴욕 리틀아일랜드의 수상 피어파크와 같은 수상공원을 마련해 수변친화공간을 늘린다. 봉천천, 도림천과 같은 복개하천은 2026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안양천에는 내년까지 수변테라스와 쉼터, 캠핑장을 설치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교권침해 피해 시 '1395' 신고 가능해진다

#### 교육부 교권보호 제도 정비·시행 학교·교육지원청 등 기관 차원 대응

새 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 '1395'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이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을 준비해왔다. 우선 신학기 개학일인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부 세종 청사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

도 제공한다. 개학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학기부터는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lhj@

## 인천시, '2023년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광역 1위)로 선정돼, 이 평가가 실시된 이후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에는 기관의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용자(사회적 약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한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인천의 품에서 부모의 품처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 전기차 1만1578대 보급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중 민간 부문은 1만1362대, 공공 부문은 216대다.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액 지원 기준 차량(승용차) 가격은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시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6 | 해질 / 18:24

2월 28일(수)  
음력 : 1월 19일

수도권 날씨  
2 ~ 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8, 동두천 -1/8, 가평 -2/9, 파주 -1/8, 서울 2/9, 양평 0/9, 수원 3/9, 용인 3/9, 평택 0/9, 백령도 3/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지치는 의료 현장... 병상 축소·환자 불편 /사진 뉴시스  
▲'직무태만 만연'...오송 참사 책임 공무원 무더기 재판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도 법정제재  
▲檢 "대포폰으로 민주당 공천 관련 연락"...정진상 측 "전부 허위"



▲공수처, 임은정 비밀누설 수사 확대...한동수 피의자로 추가 입건  
▲YTN 최대주주 변경 법정공방...“불법적 의결” vs “충분히 심사” /사진 뉴시스



# 비경 쫓아 비경에 오른 소산... 한국화의 세계화 이끌다



소산 박대성 화백이 19일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이세경의  
속깊은 인터뷰

소산 박대성 화백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에게 '소산(小山)'이라는 아호를 지어주었다. 6·25 전쟁 중에 부모를 여의고, 왼쪽 팔 마저 잃은 손자는 그 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대산(大山)'이 아니고 소산이냐며 불만을 토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말했다. "세상에 작은 산이 어데 있노."  
소산의 큰 뜻을 가슴에 품은 아이는, 한국 수묵화의 거장으로 자라났다. 10m가 넘는 거대한 화폭에 금수강산 곳곳의 아름다움을 담는다. 오른손 만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쓰는 고된 작업이다. 하루하루를 수행하듯 이 땅의 풍경을, 그 안에 뿌리내린 숭고한 정신을 담아낸다.  
더 큰 절경을 찾아 히말라야를 오르고, 실크로드를 횡단했지만 어느 곳도 소산의 비경에 견줄 수 없었다. 미국으로 떠나 화려한 기교와 색감의 현대미술을 접했지만 먹과 붓을 놓을 수 없었다. 팔십 평생 전통을 고수한 그의 수묵화는 2년 전 국경을 넘어 독일, 이탈리아, 미국 동·서부를 순회했다. 관객들은 처음 마주한 거장의 대형 산수화 앞에 유독 긴 시간 머물렀고, 전시 일정은 두 달이나 연장됐다. 컷대 높은 미국과 유럽 미술계가 연일 찬사를 쏟아내며 정통 한국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알렸다.  
소산 박대성 화백의 해외 순회 기념전 '소산비경'이 열린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를 찾았다. 'Sublime Beauty of Sosan(소산의 숭고한 아름다움)'이라는 영어 제목이 눈에 띄었다.  
박 화백은 자신의 작품 '삼릉비경' 앞에 서 있었다. 해외 미술 현장에서 찬사를 받고 '금의환향'한 대작이다. 작품 속 보름달을 등진 그의 모습에서 먹줄 가득 머금은, 고고한 붓의 형상이 떠올랐다.

- 어떻게 그림을 시작했다.  
"운명이었다. 신체적인 장애도 있었고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도 없었다. 여섯 살 때 붓을 잡은 이후 한 번도 그만 두겠다 생각한 적이 없다. 중학교 1~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등교도 거부했다. 원하지 않는 공부하기 싫었고, 몸이 불편해 자존심도 상했다. 그 이후 온전히 그림에만 몰두했다."  
- 한 손 만으로 그리는 게 힘이 들지는 않았나.  
"나는 (이 장애를) 축복이라 생각한다. 고난은 정신세계 가장 위에 있다. 모든 정신은 고난을 이기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더 큰 장애를 이기고 블랙홀을 입증해내지 않았나. 현실 사회는 장애를 불행으로 여기지만 나는 이 불편함을 극복하며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  
- 크기가 큰 작품이 많은 이유가 있다.  
"어찌 보면 '소산'의 열등감을 풀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양 미술사를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 것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건 피나는 노력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 해외 관객들이 대형 산수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일평생 '보이지 않는 뿌리'를 찾아왔다. 사람은 본디 어디서 태어나 어디에 뿌리박고 살았는지 중요하다. 이만큼 살아보니 무엇을 소유했는가 보다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그림을 통해 그 진정성을 느낀 것이다."

## 6살에 붓 잡아, 운명적으로 그림에 몰두 신체적 장애 극복하며 고난 이겨내 거대한 화폭에 금수강산 절경 담아

박 화백은 오랜 기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중국 북경, 계림, 연변 등지를 돌았고, 여러 차례 히말라야와 실크로드를 방문하며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접했다. 1994년에는 한국화의 현대화라는 꿈을 품고 뉴욕으로 건너가 현란한 현대미술의 한복판인 소호(Soho)에서 1년을 살았다. 하지만 1년만에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찾은 곳이 지금도 그의 작업실이 있는 경상북도 경주였다.  
-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나.  
"어색하게 내 작품을 서구화하고 싶지 않았다. 수 없이 해외를 다니며 세계 곳곳의 예

술을 탐구하다 보니 비로소 내가 갈 길이 보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현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그 중에서도 경주를 택한 이유가 있다.  
"가장 한국적인 곳을 찾다가 불국사가 문득 떠올랐다. 무작정 찾아가 스님께 1년 동안 불국사를 그려야겠으니 방을 달라 했다. 그 방에서 먹고 자면서 1년 내내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불국설경'이다."

## 세계여행하며 새로운 풍경·문화 접해 가장 한국적인 것 현대화하고자 귀국 한국화, 기술·정신 통일 필요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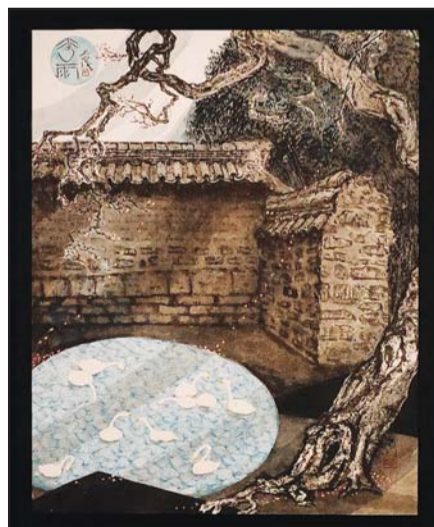
- 히말라야, 실크로드에서 한국보다 더한 절경을 만나지 않았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금수강산에 백화가 만발하다'는 표현을 했다. 처음에는 나도 선조들의 과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젠가 백두산의 봄을 찾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버스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을 때, 해가 누엣누엣했다.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꽃들이 카펫처럼 피어 있었다. 지천에 핀 수백 가지 꽃을 차마 밟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백화만발, 금수강산이란 표현을 온 몸으로 느꼈다. 그 위대한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완성한 '불국설경'은 그의 출세작이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기작이다. 눈이 가득 쌓인 불국사의 절경이 가로 8m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에 담겨있다. 하지만 그는 이 작품에서 한번도 눈을 그린 적이 없다. 하얀 화선지의 여백 그대로 눈이 뻗기 때문이다. 그리지 않고 그리는 것. 그가 말하는 한국 미술의 위대한 '술(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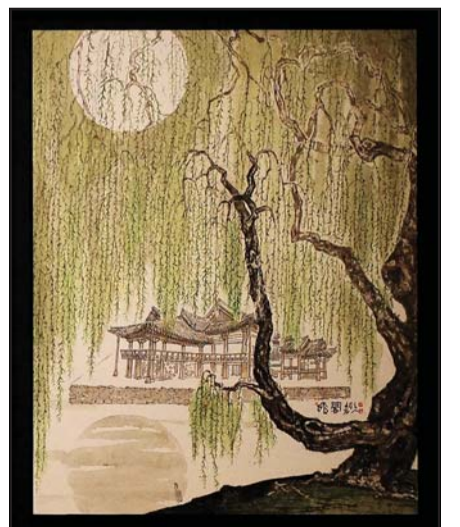
- 한국화가 왜 특별한가.  
"화선지를 바다에 깔고 붓을 드는 순간, 온 정신이 붓 끝에 모인다. 종이 위에 한 번 번진 먹은 지울 수도, 고쳐 그릴 수도 없다. 몇 번이고 몇 칠이 가능한 서양화와는 달리 붓질 한번에 철저한 기술과 정신 통일이 필요하다. 아름다움(美)뿐 아니라 기술(術)이 필요한 진짜 미술이다. 서양화는 화면을 가득 채워야 하지만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있다. 필요 없는 것은 그리지 않는다. 그리는 행위보다 정신적인 '수행'에 가깝다."



'백록담'



'화우'



'류각'

##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400억 원 이상 원조 /사진 뉴시스  
▲中·필리핀, 다시 '해상장벽' 공방...남중국해 갈등 지속

▲홍콩 증시, 반등 개장 후 지분조정 매도에 하락...H주 0.79% ↓  
▲올해 브렉시트 후 첫 유럽의회 선거... "EU 정책변화 적극 대응"



▲中, 데이터보안법·반간첩법에 기밀법도 강화...내달 개정안 통과될 예정  
▲日후쿠시마원전 부지 내 원인 미상 수증기... "화재는 아냐" /사진 뉴시스





신선식품 급등  
채감물가  
고공행진  
L1



Life

오세훈 시장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 발표  
L5



- 정작 한국에서는 한국화가 소외를 받는데...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폄하한 것이다. 침략자와 지배자는 가장 먼저 미풍양속을 제거한다.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한다. 한국화를 대학 입시 때만 그렇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교육만 빨라져도 훨씬 뛰어날 수 있다. 최근에 국악이 전 세계 주목을 받는다. 서양음악에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가 있다면, 한국전통음악에는 황중·대주·중려·임중·무역의 5음계가 있다. 색이 화려한 서양화와 달리 동양화에는 오방색이 있다. 더 강렬하고 포인트만 준다. 우리는 그런 훌륭한 문화를 모르고 서양 문화만 쫓고 있다.”

### 뛰어난 한국 문화 널리 알리고 배워야 대작도 '내 것' 아냐... 소유한 적 없어 작품 기증해 경주술거미술관 기틀 마련

- 지금도 경주에 머물며 유적들을 그림에 담는 이유가 있다.

“문명 발전과정을 보면, 신라의 서라벌은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이슬람 제국 바그다드, 당나라 장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에 포함됐다. 도시유물로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는 세계 다른 곳에서 따라갈 수 없다. 지방에 유물로 내버려두고 있으니 분통터지는 일이다. 경주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무한경쟁시대인데, 가진 것도 못 쓰는 꼴이다.”

지난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견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에 그의 불국설경이 걸렸다. 생존 화가의 작품이 전시된 건 박 화백이 유일했다. 이견희 회장은 생전 그를 존경했고 그의 작품을 아꼈다. 정기적으로 그에게 새 그림을 주문해, 한 때 '이견희 전속 화가'로도 불렸다. 작품의 가치는 이미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그는 작품을 소유한 적이 없다. 일평생을 담아 그린 대작도 '내 것'이 아니라 여긴다.

지난 2008년 박대성 화백은 경주에 자신의 작품 830점을 기증하며 '경주술거미술관'의 틀을 세웠다.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을 기증해 한두 개의 미술관을 추가로 여는 것이 목표다.



박대성 화백의 '불국설경'은 눈이 가득 쌓인 불국사의 절경을 가로 8m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에 담은 대작이다.

지난 2021년 술거미술관을 찾은 한 아이가 20m에 달하는 그의 작품을 밟아 훼손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수리비만 1억이 넘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는 “그게 애들이지”라며 웃어 넘겼다.

- 일평생 그린 작품을 기증하는 건 아깝지 않나.

“나와 우리 가족보다 우리 국민, 동포가 더 중요하다. 오랜 수행을 통해 가급적 남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 왔다. 태어나면서 가져온 것도,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없는데 내 것이 어디 있나.”

- 미술관은 왜 세우려고 하나.

“뉴욕은 예술에 있어서는 정말 선진국이다. 그 곳에 살아보니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남을 위해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자기보다 가족을, 주변을, 사회를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도 그런 이유다.”

- 현대미술을 배우러 간 곳에서 선진문화만 배웠다.

“사실이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를 유심히 살피다 보니 내 것을 기꺼이 내놓는 법을 배웠다. 예술에도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과급력으로 좋은 작가도 나온다. 네 것 내 것 없이 살아야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 작품을 훼손한 것엔 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나.

“나도 손자, 손녀를 키운다. 달리 보면 우리 애들 아닌가. 아이가 모르고 한 것을 누가 탓할 수 있나. 수리비로 1억3000만원이 든다더라. 만일 돈을 받고 책임을 물었다면 미술관은 그 아이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다. 작품은 그곳에 그대로 전시돼 있다. 아이가 밝은 발자국, 그 또한 역사다.”

'비경'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 그리고 '신비로운 경지'. 박 화백은 최근에도 커다란 설경 하나를 완성했다. 하루 25시간, 깨어서도 자면서도 온통 그림만 생각한다고 했다. 그렇게 산 날들이 하루 이를 쌓여 벌써 80년이 됐다. 소산의 비경을 쫓아 수행하던 외팔 화가는 마침내 비경의 경지에 올랐다. 그에게 남은 꿈이 있냐고 물으니 “그저 좋은 그림 하나 그리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산은 아직 최고의 작품을 만나지 못했다.

### 꾸준히 기증해 미술관 추가 개관 목표 배우는 마음으로 예술 공공성 확대 기여 끝 없는 창작... '최고의 작품' 만나고파

- 소산(小山)의 의미는 뭔가.

“내 이름이 클 대(大), 이룰 성(成)이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다. 이름도 큰데 호까지 대산(大山)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산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어디 있나.'”

- 더 좋은 작품은 아직 남은 건가.

“창작의 세계는 끝이 없다. 체육도 끝이 없이 기록을 넘어서는 과정이지 않나. 나는 아직 최고로 가는 과정에 있고, 그 작품을 위해 늘 연습하고 있다. 그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럴 작정이다. 가급적 허튼 시간을 안 가지려 한다. 좋은 그림 하나 그리는 게 여전히 내 꿈이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그가 건네는 손을 잡았다. 긴 세월 붓을 잡고, 모든 고행을 홀로 견뎠을 오손손. 따뜻하고 힘이 있는 악수였다. 거장의 온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소산 박대성 화백

1945년 경북 청도 운문면 공암리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박대성 화백은 5살이 되던 1949년 여름, 운문산에 은거하던 빨치산에 의해 한쪽 팔을 잃었다.

이후 독학으로 전통 수묵화를 익힌 그는 대한민국의미술전람회(국전)에서 내리 8번 입선하고, 중앙미술대전에서 첫해에 입선, 2회에 대상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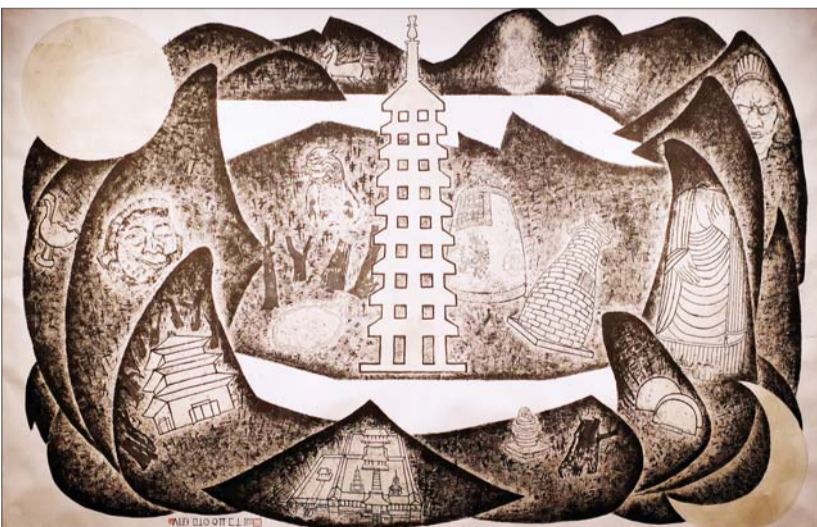
그의 작품은 1974년 대만 공작화랑을 시작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1987년 독일 쾰른 파리나갤러리, 1988년 호암갤러리, 1997 파리 가나보부르갤러리, 2006년 가나아트센터, 2011년 중국 베이징 중국미술관, 2013년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리대학교 갤러리, 2015년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술관 개인전 등에 초대됐다. 현재 그의 작품 대부분은 술거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1999년 경주에 정착한 그는 유적, 문화재를 보며 새롭게 역사를 탐구했고 2015년 회화 435점, 글씨 182점, 벼루 먹 213점 등 모두 830점을 술거미술관에 기증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도 선정돼 화업이 정리되고 있다.

박대성 화백의 작품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소산비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앞서 베를린 전시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하버드대 한국학센터, 다트머스대 후드미술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메리워싱턴대 등 총 8곳의 해외기관에서 전시한 그는 이번 기념전에서 상릉비경과 금강설경, 신라몽유도 등을 전시한다.



'신라몽유도'



'현울'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정후, 28일 MLB 시범경기 데뷔... 1번 중견수 출전 /사진 뉴시스  
▲김하성, MLB 시범경기 3연속 안타... 타율 0.750

▲EPL 에버턴, 승점 삭감 10점서 6점으로 감경  
▲영국 매체 “손흥민, 토트넘과 새 계약 논의...올여름 공식 협상”



▲'혼다 타이랜드 공동 3위' 김세영, 女골프 세계랭킹 42위 도약 /사진 뉴시스  
▲PGA 투어 코그니전트 클래식 29일 개막...임성재·김주형 등 출



SAMSUNG

# Galaxy S24 Ultra

Galaxy AI ✨ is here



samsung.com

\*일부 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